

2020년 한국중동학회/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동정세 : 분쟁과 평화

일 시 2020년 9월 12일 (토) 10:00-14:30 (Webex 비대면 온라인 개최)

| 주 최 | 한국중동학회

| 공동주최 | 한국이슬람학회,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2020년 한국중동학회/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 춘계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개회식

사회: 곽새라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

10:00-10:30	개회사: 윤은경(한국이슬람학회장) 축 사: 박재원(한국외대 중동연소 소장) 오은경(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퇴임 기념 논총 전달식: 송경근 교수(명지대) 공로패 전달식: 이인섭 교수(한국중동학회 전임회장, 한국외국어대)
-------------	---

정치분과

사회: 유달승 (한국중동학회 부회장, 한국외국어대)

10:30-10:50	“쿠웨이트의 왕권승계” 발표: 최영철 (성균관대) 토론: 남옥정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10:50-11:10	“코로나19와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취약성” 발표: 김은비 (국방대), 황의현 (한국외국어대), 이경수 (한국외국어대) 토론: 이효분 (인천대)
10:50-11:1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동지역 미중 전략경쟁” 발표: 김강석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토론: 이수진 (한국외국어대)
11:30-11:50	“2019~20년 이스라엘 총선에서 나타난 군의 정치 충원 및 그 정치적 함의” - 2020년 3월 총선을 중심으로 - 발표: 안승훈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토론: 홍미정 (단국대)

점심 식사 (11:50-12:30)

경제분과	
사회: 김중관 (동국대)	
12:30-12:50	“OPEC플러스(+) 출범배경 및 감산합의 진행현황과 석유시장 전망” 발표: 송상현 (단국대) 토론: 백승훈 (한국외국어대)
12:50-13:10	“중동주요국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분석” 발표: 신상윤 (숭실대) 토론: 이권형 (KIEP)
사회·문화분과	
사회: 김수완 (한국외국어대)	
13:10-13:30	“레바논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검열 코드와 사회적 금기” 발표: 안정국 (명지대) 토론: 김은지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13:30-13:50	“15세기 이스탄불 킬리예(külliye) 건설을 통한 도시 재건 관찰” 발표: 최선아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토론: 이수정 (한국외국어대)
13:50-14:10	“지중해 종교문명의 ‘근대성’ 과 ‘세속화’ ” -지중해문명의 르네상스 재해석을 중심으로- 발표: 김정하 (부산외국어대) 토론: 정진한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폐회식	
사회: 김정명 (한국이슬람학회 총무 이사, 명지대)	
14:10-14:30	폐회사: 정상률(한국중동학회 회장)

목 차

정치분과

“쿠웨이트의 왕권승계”	09
--------------------	----

발표: 최영철 (성균관대)

토론: 남옥정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코로나19와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취약성”	29
---------------------------------	----

발표: 김은비 (국방대), 황의현 (한국외국어대), 이경수 (한국외국어대)

토론: 이효분 (인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동지역 미중 전략경쟁”	37
---------------------------------	----

발표: 김강석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토론: 이수진 (한국외국어대)

“2019~20년 이스라엘 총선에서 나타난 군의 정치 총원 및 그 정치적 함의” - 2020년 3월 총선을 중심으로 -	43
---	----

발표: 안승훈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토론: 홍미정 (단국대)

경제분과

“OPEC플러스(+) 출범배경 및 감산합의 진행현황과 석유시장 전망”	59
--	----

발표: 송상현 (단국대)

토론: 백승훈 (한국외국어대)

“중동주요국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분석”	73
-----------------------------	----

발표: 신상윤 (숭실대)

토론: 이권형 (KIEP)

사회·문화분과

“레바논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검열 코드와 사회적 금기” 83

발표: 안정국 (명지대)

토론: 김은지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15세기 이스탄불 쿨리에(külliye) 건설을 통한 도시 재건 관찰” 101

발표: 최선아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토론: 이수정 (한국외국어대)

“지중해 종교문명의 ‘근대성’ 과 ‘세속화’ ”

- 지중해문명의 르네상스 재해석을 중심으로 - 109

발표: 김정하 (부산외국어대)

토론: 정진한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정치분과

사회: 유달승 (한국중동학회 부회장, 한국외국어대)

“쿠웨이트의 왕권승계”

발표: 최영철 (성균관대)

토론: 남옥정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코로나19와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취약성”

발표: 김은비 (국방대), 황의현 (한국외국어대), 이경수 (한국외국어대)

토론: 이효분 (인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동지역 미중 전략경쟁”

발표: 김강석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토론: 이수진 (한국외국어대)

“2019-20년 이스라엘 총선에서 나타난 군의 정치 총원 및 그 정치적 합의” - 2020년 3월 총선을 중심으로 -

발표: 안승훈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토론: 홍미정 (단국대)

“쿠웨이트의 왕권승계”

최영철 (성균관대)

쿠웨이트의 왕권승계

- ❖ 2020년 9월 12일(토요일)
- ❖ 한국중동학회-한국이슬람학회 공동준계 학술대회(온라인)
- ❖ 발표자: 최영철 (성균관대)

쿠웨이트의 왕권 승계 규범

- 쿠웨이트 헌법 제4조: 쿠웨이트 왕권은 무바라크 대왕(제7대, 통치 1896-1915)의 후손들이 계승한다.
- 왕세자는 국왕 즉위 후 1년 이내에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로 아미르의 칙령으로 임명한다.
- 왕세자는 건전한 이성을 가진 무슬림 부모의 아들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제8대 자비르 국왕(통치 1915-1917) 이후 2006년 사바흐 국왕 이전까지 알-사바흐 왕가 내에서 합의에 의해 국왕이 즉위했다.
- 그러나 2006년 현 사바흐 국왕은 왕가 내에서 합의가 결렬되어 국회에서 차기 국왕이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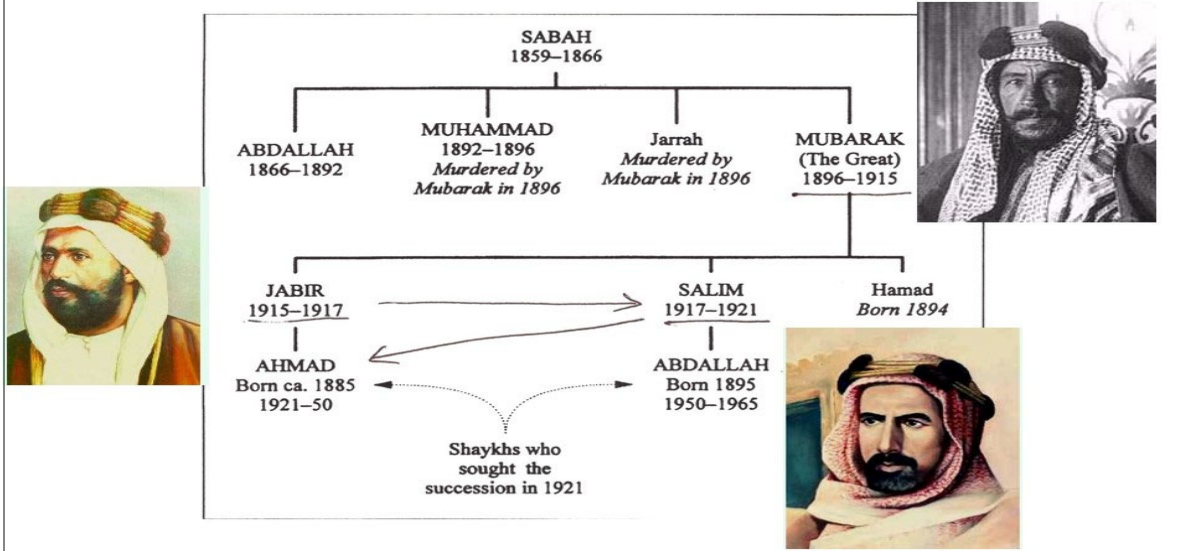
쿠웨이트 왕조의 창건

- 쿠웨이트시 1672년 창건. 바니 우툽 부족 1716년부터 쿠웨이트 지역에 정착 시작. 1752년 통치자로 사바흐 빈 자비르를 쿠웨이트 초대 통치자로 선출. 1756년까지 통치.
- 당시 우툽 부족은 알-칼리파(Al-Khalifa), 알-잘라히마(Al-Jalahima), 그리고 알-사바흐(Al-Sabah) 세 가문으로 구성.
- 알-칼리파 가문: 진주채취 산업, 무역에 종사. 상인 가문으로 부유했다. 알-잘라히마 가문: 선박 건조 및 관리. 알-사바흐 가문: 정부 기능 수행. 법과 질서유지, 대외 외교 업무 등 담당.
- 상인 엘리트들과 알-사바 통치 왕가는 전자가 왕가를 제정적으로 지원, 왕가는 쿠웨이트의 통치자로서 중요 사안에 관해 상인 엘리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결합통치('joint-governing')의 정치구조 형성 => 19세기 말까지 통치 왕가 - 상인 엘리트 간 균형적인 관계와 권력구조 유지됨.

1896년 무바라크의 왕권 장악

- 제6대 국왕 무함마드 1세(1892-1896 통치)는 이복형제인 자라(Jarrah)와 무바라크(Mubarak)와 권력 분점. 본인: 행정과 외교, 자라: 재정, 그리고 무바라크: 국방
- 무바라크(1896-1915 통치)는 1896년 영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무함마드 1세와 자라를 살해하고 왕권 장악.
- 1897년 오스만 제국에게 충성 맹세. 오스만 제국의 까임마캄(Quimmaqam)이 됨.
- 1899년 영국-쿠웨이트 조약(Anglo-Kuwaiti Treaty) 체결하고 영국의 보호령이 됨. 외교, 국방권 영국에 양도.
- 1913년 영국 동의 없이는 석유개발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 영국의 식민통치 체제 편입. 영국은 매년 알-사바흐 통치 왕가에게 15,000 인도 루피의 보조금 지원.
- 무바라크 1세는 지략의 전략가인 동시에 독재자라는 비판.

1896년 무바라크의 왕권 장악과 그 후손의 왕권 승계 구도 형성



자비르(1915-1917), 살림(1917-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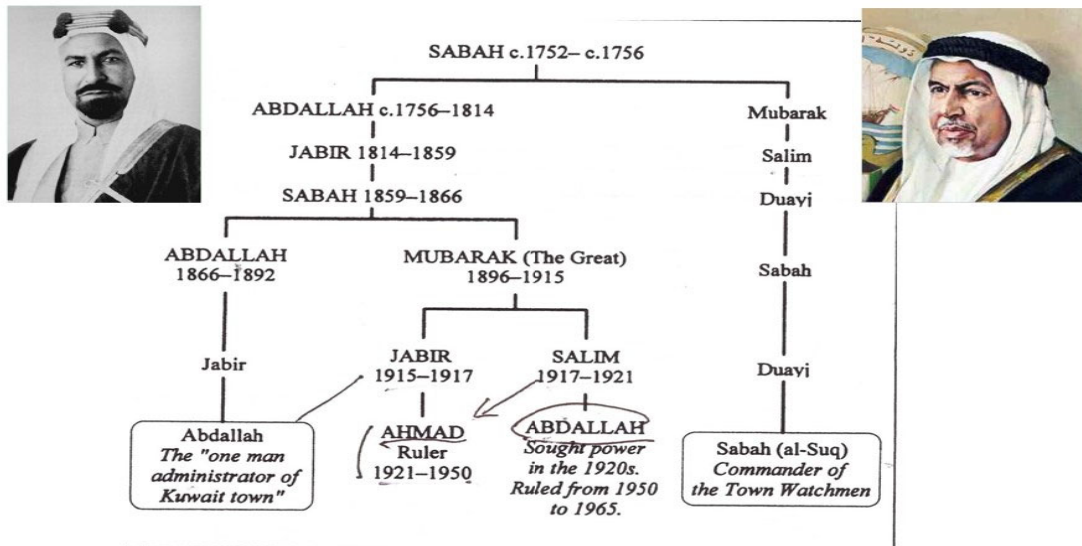
- 제8대 자비르(1896-1915)와 제9대 살림(1917-1921) 두 국왕은 무바라크 대왕의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자비르는 무바라크의 대외 전투에 참여. 친 영국 정책.
- 무바라크가 전제적인 통치자였다면 자비르는 온유한 통치자로서 대 상인 엘리트, 대 국민 관계 개선.
- 살림: 1917년 2월 영국이 그의 즉위 승인을 지체하자 영국의 쿠웨이트 정무관(Political Agent)을 방문하여 관계개선 시도.
- 1905-08 무바라크의 상인들에 대한 관세인상. 상인들의 바레인 이주(퇴장전략). 관세조치 취소 => 쿠웨이트 야권세력 등장의 효시, 정치세력화 => 조직화, 제도화 => 1921년 의회 성격의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의회 구성 요구 => 왕권 승계 등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참여 요구.

- 1920년 사우디 와하비(Ikhwan) 군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자 상인들이 살림에게 영국 지원 요청을 권고함. 영국은 장갑차, 전함과 전투기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함.
- 사우디와 이라크, 이란 등 주변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국력의 큰 차이로 국방에서의 취약성 노정. 독립과 생존을 패권국가에 의존. 쿠웨이트는 왕권 승계에서 영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 왕권에 도전하는 왕자들, 영향력 행사하려는 상인 엘리트 등 쿠웨이트 사회, 정치세력은 영국이 왕권 승계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
- 1918년 상인들은 살림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자문의회 설립을 추진함. 쿠웨이트 주재 영국정무관 방문하여 지지 받음 - 살림의 왕권 견제를 위한 쿠웨이트 상인들과 영국의 이해 합치.

아흐마드 1세(1921-1950)

- 1921년 무바라크의 두 손자 아흐마드 알-자비르(1885년생, 통치 1921-1950)와 압둘라 알-살림(1895년생, 통치 1950-1965) 간 왕권 경쟁.
- 1921년 2월 24일(살림 국왕의 장례 다음 날) 1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대표 하마드 알-사크르(Hamad Al-Saqr)는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청원을 사바흐 왕가에 제출.
- 청원: 1) 아흐마드 알-자비르, 2) 압둘라 알-살림, 3) 하마드 알-무바라크 3인 중 한 명 차기 국왕 임명 요구 => 사바흐 왕가 수용, 아흐마드 왕권승계. 하마드 왕세제 임명(1921-38)
- 상인 그룹의 주도과 영국의 지지, 그리고 사바흐 왕가 수용, 자비르와 살림 두 가문 간 왕권의 교차 승계 규범 형성.
- 아흐마드는 자문위원회 요구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아흐마드-압둘라 왕권 경쟁



1938 입법의회 운동

- 압둘라: 아흐마드 국왕의 즉위 이후에도 재정 관장 등 기득권 유지 시도.
- 아흐마드 국왕의 재정자원 독점. 왕가와 상인그룹 소외로 인한 불만 증대. 쿠웨이트의 고립, 경제 사정 악화로 아흐마드 국정에 대한 여론 악화. 정국 불안정 및 아흐마드 권력 강화에 대한 영국의 개입 필요성 증대.
- 1938년 6월 영국 정무관이 자문의회 설립 권고.
- 상인 엘리트 그룹, 영국 주재관의 권고 내용 입수.
- 왕가 야권 살림 가문 지원 하에 입법의회 선거 요구.
- 상인 엘리트 - 영국 - 살림 가문 3자 연대하여 입법의회 선거 실시 요구.
- 아흐마드 국왕: 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입법의회 선거 실시 요구 수용.

- 직접선거로 구성된 입법의회(Majlis)는 영국과 왕가 내 아흐마드 반대 진영(살림 가문) 지지 하에 기본법 제정.
- 입법의회가 관세청, 경찰청, 법원, 교육기관 등 공공 및 국가 핵심 조직 장악.
- 경찰청, 항만청, 교육기관, 재무부, 병원의 설립 등 치안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 기관 설립 및 개혁. 현대 쿠웨이트 국가의 기본적인 골격 구축.
- 아흐마드 국왕의 제상이자 핵심 측근인 물라 살리흐(Mullah Salih)를 망명 형식으로 국외로 추방.
- 관세청, 법원, 시청 등 정부 기관의 부정부패 공무원 해임.
- 상인들에 대한 관세 경감, 왕가에 대한 각종 특혜 철폐.
- 상인-살림 가문-영국 연합 붕괴 => 입법의회 시행 6개월 만에 해산.
- 상인 엘리트 물리적 저항시도 => 국왕 군대와 배두원족 동원하여 진압.

❖ 실패 요인:

- 1) 입법의회는 석유자원 개발로 인한 재정수입 장악 => 영국 국익 침해 => 영국의 지지철회. 상인 엘리트의 득세가 쿠웨이트 내 아랍민족주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판단함.
- 2) 상인 엘리트들이 파하드 등 입법의회 운동을 지지했던 왕자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자, 이들이 아흐마드 국왕과 타협하고 연합전선에서 이탈, 입법의회 해산 지지.
- ❖ 결과:
- 압둘라 등 살림 가문의 왕자들이 입법의회 운동을 통해 구축된 정부의 주요 부처 장악.
- 압둘라가 국정의 해계모니를 장악하고 실질적인 왕세제로서 국정을 총괄함. 아흐마드는 명목적인 통치자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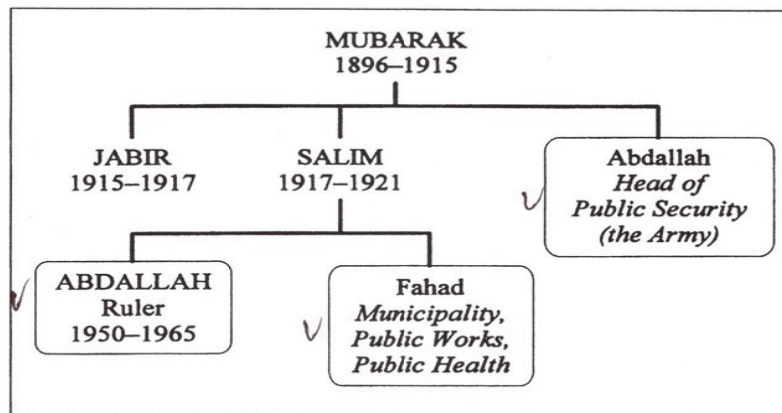
1939년 왕가의 정부 요직 장악

- 안보군 사령관: 알리 (Ali al-Khalifa),
- 안보군 부사령관: 압둘라 (Abdullah al-Mubarak)
- 병기관리청장: 압둘라 (Abdullah al-Ahmad)
- 재무부: 압둘라 (Abdullah al-Salim), 파하드 (Fahad al-Salim)
- 쿠웨이트 지사: 압둘라 (Abdullah al-Khalifa)
- 지방행정청장: 하무드 (Hamud al-Jabir)
- 경찰청장: 사바흐 (Sabah al-Salim)
- 쿠웨이트시 경비대장: 살만 (Salman al-Fadhil)
- 항만청장: 무함마드 (Muhammad al-Jabir)
- 법원장: 압둘라 (Abdullah al-Jabir)

압둘라 3세 (1950-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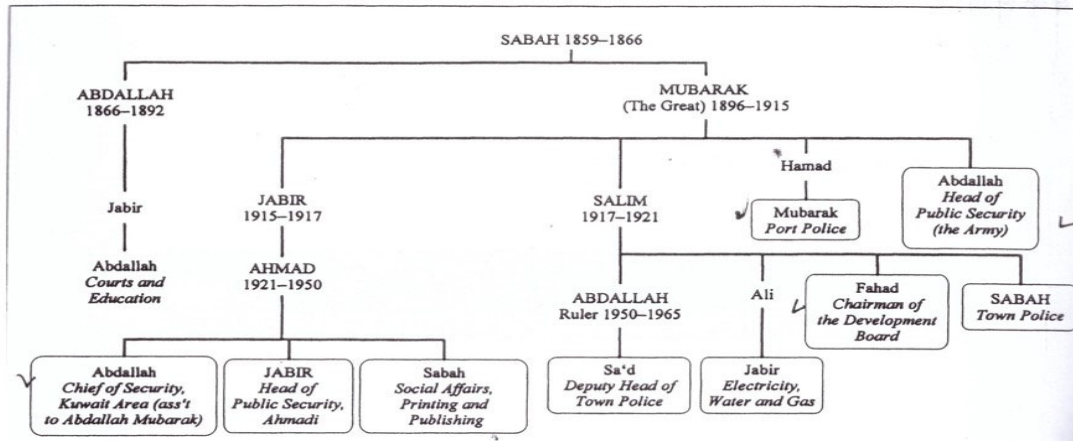
- 1950년 1월 아흐마드 1세 서거 후 압둘라가 즉위했으나 조건부 승인을 목적으로 영국은 승인을 지연시킴.
- 요인: 제2차 세계대전 前後 압둘라의 친 추축국 경향과 산유국으로 부상한 쿠웨이트로부터 국익 추구 극대화를 위한 전략. 약 한달 만에 승인.
- ❖ 압둘라 즉위 후 새로운 권력구조 형성
- 이복동생 파하드 (왕권경쟁): 지방행정조직, 경제개발, 공공의료기관, 재정 장악. 특히 석유개발 등 오일머니 장악.
- 압둘라 알-무바라크 (국왕 삼촌): 군부 장악. 1940년대 이후 왕권 승계자로 부상. 1950년대 국왕 부재 시 대리인 역할.
- ❖ 영국 경제 국익추구 극대화 시도, 파하드 저항 (1951-54).
- 1951년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 감독위한 고문 파견. 관세청과 경제개발위원회 고문들도 파견.
- 압둘라 국왕 영국 지지했으나 파하드, 영국에 승리.

1950년대의 왕권 경쟁



- 파하드: 영국기업의 정부 발주 사업 독점 철폐하고 상인 엘리트 지원. 상인 엘리트와의 관계 개선.
- 영국 총리 처칠이 압둘라에게 영국인 비서 임용 요구. 왕가 내 친 영국 인사들도 처칠의 요구 수용 압력. 영국의 반대에도 중앙은행 창립 관철. 압둘라 퇴위 위협. 1954년 영국 포기. 쿠웨이트 정부에 영국인 종사자 배제 => 소국 쿠웨이트 독립성, 자율성 확보 성공, 영국 대 쿠웨이트 영향력 한계 노정.
-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파하드의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영향력 증대.
- 압둘라 국왕은 젊은 세대 왕자들과 연대, 내각회의(Majlis al ala) 제도화로 도전에 대응.
- 1959년 개각: 파하드의 재무부(=>자비르 알-아흐마드), 보건 부 등 주요 직책 상실 => 파하드 내각에서 사임.
- 압둘라 알-무바라크: 왕세자 공식 임명 요구. 반대파의 공격 격화 => 1961년 장관직 사퇴, 망명으로 대응. 퇴장 전략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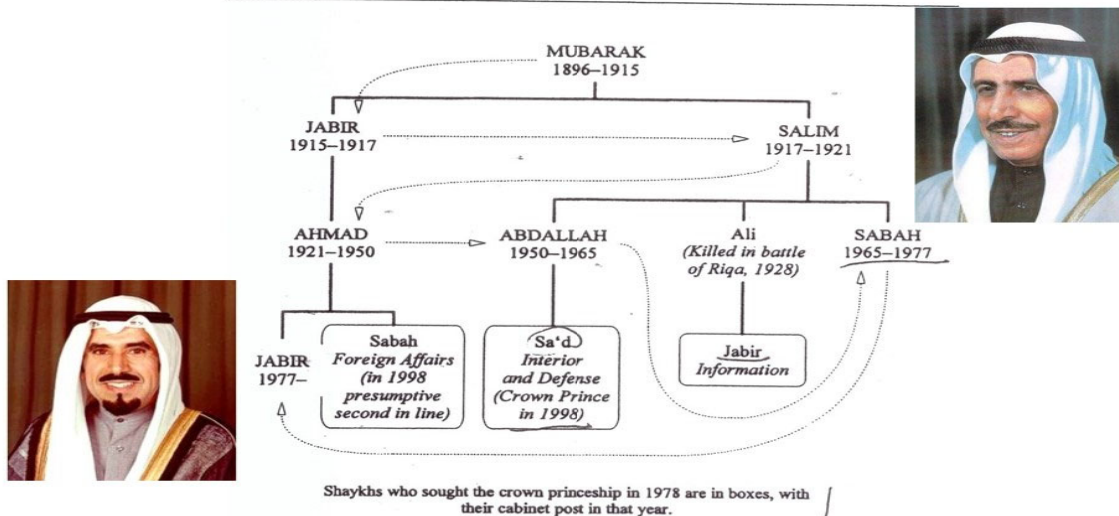
1950년대의 왕권 경쟁(1955년)



1962년 왕세자 선출

- 1961년 왕권 경쟁자 압둘라의 퇴장 후, 압둘라 국왕은 왕가 내 광범위한 자문 끝에 이복동생 사바흐 알-살림을 왕세자로 왕가 합의로 선출.
- 자비르-살림 두 가문 간 왕권의 교차 승계 규칙이 깨어졌으나 자비르 가문의 자비르 알-아흐마드 등의 하에 사바흐 왕세자 임명이 이루어짐.
- 자비르 가문에서 압둘라 알-아흐마드(모친 아즈만 부족 출신)가 연장자였으나 압둘라 국왕은 자신의 친누이(Bibi Mariam, 살림 1세의 딸) 아들인 자비르 알-아흐마드와 긴밀히 연대. 압둘라 국왕의 권력투쟁을 적극 뒷받침함.
- 1965년 사바흐 국왕의 즉위 후 자비르 알-아흐마드를 왕세자로 임명함에 따라 자비르-살림 두 가문 간 왕권의 교차 승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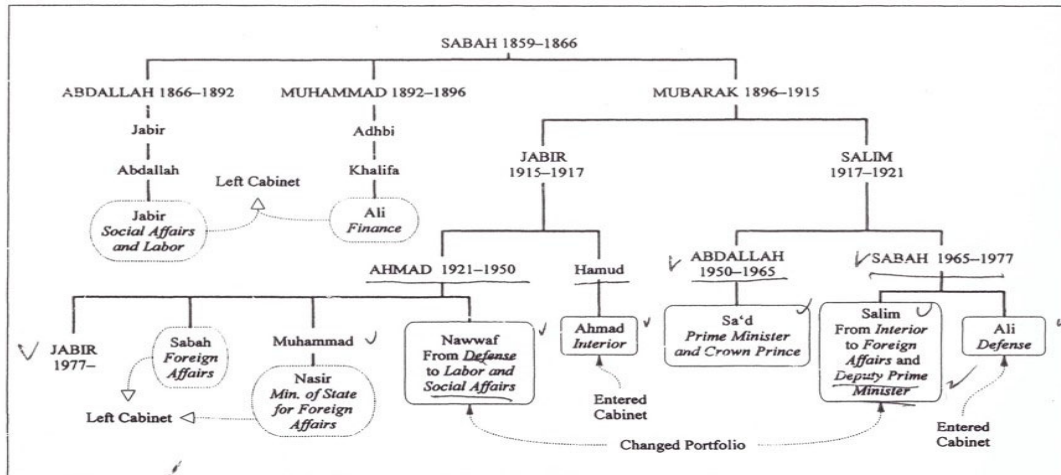
자비르와 살림 두 가문 간 교차 집권



1978년 왕세자 임명과 왕권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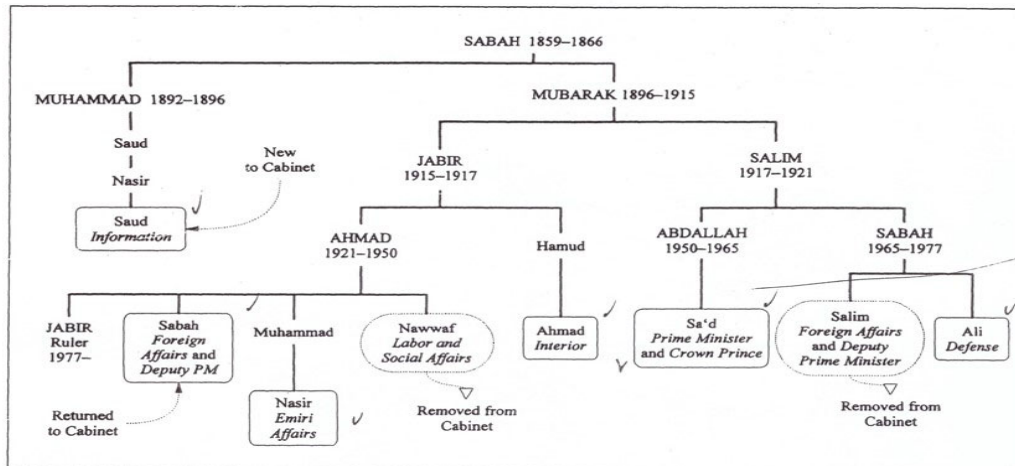
- 1978년 사바흐 3세 국왕의 서거 후 40일 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후 사아드 알-압둘라의 왕세자 임명.
- 1962-1978 내무장관, 1964-1978 국방장관.
- 1978-2003 총리, 1978-2006 왕세자, 2006 국왕(8일).
- 2003년 왕세자 직과 총리 직 분리 임명.
- 2003년 사바흐 알-아흐마드 전 외교장관을 총리에 임명. 차기 왕권 승계 순위에서 총리직의 중요성 증대.
- 1962년 헌법 제정,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 창립.
- 국회가 왕권 경쟁의 중요한 공간화.
- 차기 왕세자를 놓고 자비르-살림 두 가문 간 갈등. 외교장관 사바흐 알 아흐마드 지지자들이 사아드 왕세자 지지자들을 공격. 일부 사아드 지지 장관의 퇴진.

1990년대의 왕권 경쟁(1991)



- 1990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시 이라크 군에 대한 발포를 금지시켰던 나와프 국방장관과 살림 알-사바흐 내무장관에 대한 군장교들의 퇴진 청원으로 내각 개편. 사바흐 알-아흐마드 외교장관 퇴진과 국방-내무 장관 자리 교체-제한적인 영향.
- ❖ 1992년 총선에서 야당 승리.
- 살림 알-사바흐 외교장관, 나와프 노동, 사회장관 퇴진, 사바흐 알-아흐마드 외교장관 복귀 => 의회의 왕가 견제와 선거결과가 내각 구성에 일정부분 영향 미침. 야당은 그들의 공격에서 왕가의 파벌 간 어느 정도 균형 유지.
- 1996년 여당의 총선 승리 후 살림 알-사바흐 국방장관으로 복귀. 사바흐 알-아흐마드 외교장관 및 부총리직 유지.
- ❖
- 살림 알-사바흐: 국방 1978-1987, 1996-2001, 내무 1988-1991, and 외교 1991-1992, 제2 부총리 1991-1992 & 1996-2001.

1990년대의 왕권 경쟁(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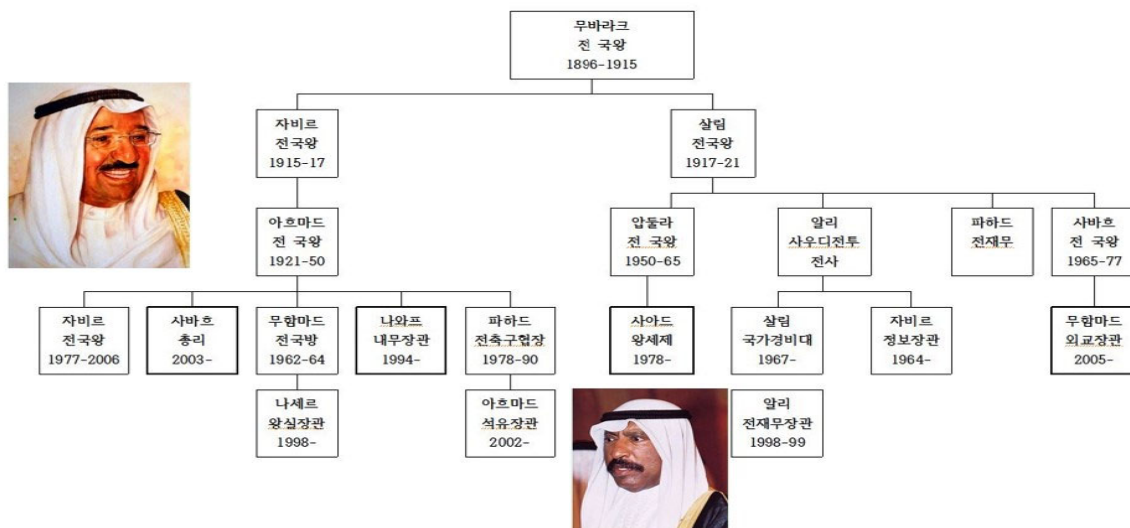
사바흐 알-아흐마드와 살림 알-사바흐 왕권 경쟁

- ❖ 사바흐 알-아흐마드:
 - 정보장관 1962-1963, 1982-1985 (actg 1971-1975),
 - 외교장관 1963-1991, 내무장관 1978,
 - 부총리 1978-1991, 1992-1998, 제1부총리 1992-2003,
 - 총리 겸 내각회의 의장 2003-2005.
- ❖ 살림 알-사바흐:
 - 국방장관 1978-1987, 1996-2001,
 - 내무장관 1988-1991, 외교장관 1991-1992,
 - 제2 부총리 1991-1992 & 1996-2001.
 - 오랫동안 투병 끝에 2007년 서거. 건강도 왕권 경쟁에서 중요한 자산.

2006년 왕권 경쟁

- 자비르 3세 국왕(통치 1977-2006): 2001년 9월 뇌졸중 후, 투병 끝에 2006년 1월 15일 서거(79세).
- 2006년 1월 15일 사아드 알-압둘라 왕세제 왕권 승계.
- 2005년 10월 10일 알-캅바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경비대(National Guard) 사령관이며, 왕가 내 서열 4위인 살림 알-알리 알-살림이 국왕과 왕세제가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3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리를 보좌할 것을 제안 => 사바흐 총리 거부.
- 3인 위원회: 살림 알-알리(1926년생), 사바흐 알-아흐마드 총리(1929년생), 무바라크 빈-압둘라 알-아흐마드 전 정보장관(1932년생).
- 2006년 1월 20일 왕가 회의에서 1) 사바흐 총리 국왕 즉위, 2) 무함마드 알-사바흐 왕세제 책봉, 나와프 내무장관 총리 임명 등을 합의 => 살림 알-알리. 협상 결렬.

2006년 왕권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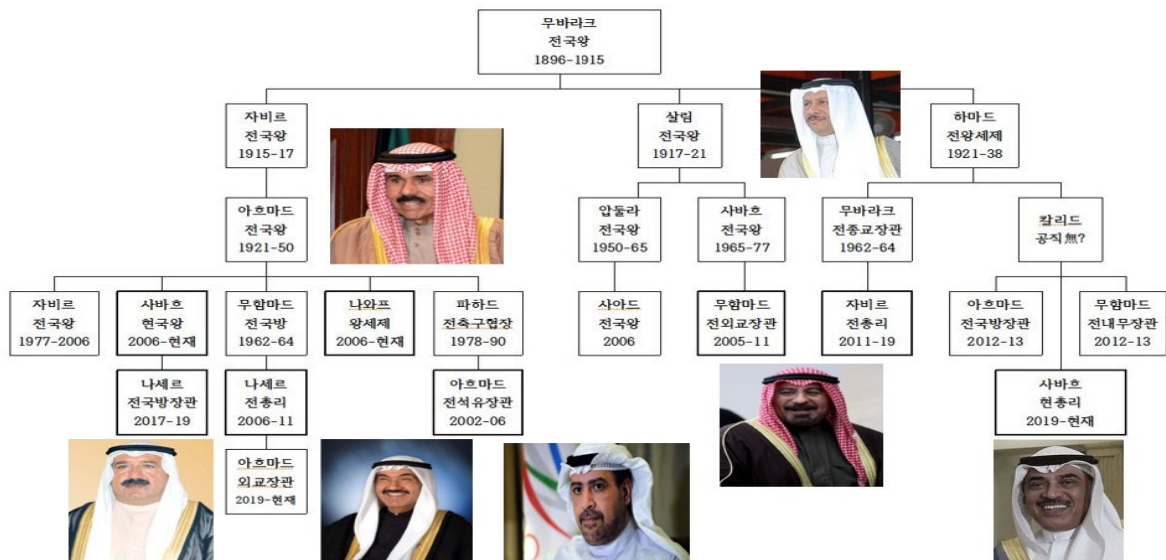


- 2006년 1월 21일 국회는 국무회의와 국왕으로부터 상충되는 공문을 받음: 1) 국무회의는 왕권 승계법 제 3조에 의해 사아드 국왕이 건강 상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여 사아드 국왕의 퇴위를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함. 2) 사아드 국왕은 국왕 충성 선서를 위한 국회의 특별회의 소집을 요구.
- 자심 알-코라피 국회의장이 사아드 국왕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
- 사바흐 총리의 국왕 즉위 반대: 살림 알-알리 국가경비대 사령관, 무함마드 알-칼리드 전 내무장관 등 극히 일부. 살림 알-알리 자신의 두 아들과 살림 가문의 무함마드 알-사바흐 외교장관도 사바흐 총리 지지.

- 2006년 1월 23일 사아드 국왕 자진 퇴위 수락.
- 2006년 1월 24일 사아드 국왕 자진 퇴위 서신 도착 직 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사아드 국왕의 강제 퇴위를 결정.
- 쿠웨이트 국무회의는 사바흐 알-아흐마드 총리를 국왕으로 추천.
- 2006년 1월 29일 국회가 사바흐 알-아흐마드 총리의 국왕 임명 승인, 충성 선서로 위기 종료.
- 왕위 계승을 둘러싼 통치 왕가 내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국회의 개입과 문제 해결이 쿠웨이트 왕가의 분절화 및 응집력의 약화를 심화 시킴.

- 2006년 이슬람주의자들과 자유주의 계열의 야당 지도자들 모두 왕위 승계과정에서 국회를 통한 문제 해결과정에 협조했으며, 국회는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분란에 개입.
- 왕가는 쿠웨이트 왕국의 가장 근본적이고 민감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국회와 야당 지도자들을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시켰으며, 이에 따라 통치 왕가 자신이 왕권승계에 관련된 비공식적 게임 규칙을 변경함.
- 왕권승계와 내각 구성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의 증가가 왕가와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쿠웨이트 정치 권력 구조의 변화 초래.

2020년 현재 왕권 경쟁



2020년 현재의 왕권 경쟁과 전망

- ❖ **나와프 왕세제(83세)**
 - **경력:** 내무장관 1978-1988, 2003-2006, 국방장관 1988-1991, 1992-1994, 국가경비대 부사령관, 1994-2003, 제1부총리 2003-2006. 왕세제 2006-현재
 - **정부의 핵심 요직 역임. 차기 국왕 즉위 확실. 정치적 영향력 약하나 차기 왕세제 결정에 중요역할. 과감한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 선호**
- ❖ **나세르 알-사바흐 경제 기획·개발위원회 의장(72세)**
 - **경력:** 외교담당 국무장관 1990-1991, 왕세자 및 총리 특별보좌관 1999-2006, 국왕비서실 실장(장관) 2006-2017, 국방장관 2017-2019, 현 국왕 장남.
 - **국방장관 재임 시 전임자의 부정부패 혐의 고발 후 사퇴. 차기 왕세자 임명 가능성 50%(Courtney Freer 2020).**
 - **왕세자 취임 시 경제다변화 정책 등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 추진 가능성. 상인 엘리트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대.**

- ❖ **나세르 알-무함마드 국왕비서실 실장(80세)**
 - **경력:** 정보장관 1985-1988, 사회노동장관 1988-1990, 외교담당 국무장관 1990-1991, 국왕비서실 실장(장관) 1998-2006, 총리 2006-2011, 국왕비서실 실장 2011-현재
 - **국회에서 정부 법안과 정책 지지 대가로 15명의 국회의원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야당의 공격 표적, 총리직 사퇴. 그러나 국왕의 신뢰 지속. 그의 차남(39세) 2019년 외교장관 임명됨.**
 - **차기 왕세제 임명 가능성 30%(Courtney Freer 2020).**
 - **친 사우디 경향. 국회 야당과의 공격과 적대적 관계는 과제.**

- ❖ **아흐마드 알-파하드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회장(57세)**
- **경력:** 정보장관 2001-2003, 에너지장관 2003-2006, OPEC 의장 2004-2005, 국가안보회의 의장 2006-2009, 경제부총리 겸 경제개발, 주택 담당 국무장관 2009-2011. 쿠웨이트 축구협회장 1990-현재,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회장 1990-현재.
- 야권과 연대하여 통치 왕가와 집권세력 견제. 반살림가문 리더. 차기 왕세자 임명 가능성 15%.
- 무슬림형제단, 이슬람정당, 부족주의 계열, 청년세대, 야권과 연대. 대중적인 인기.
- 부친(파하드 알-아흐마드)이 1967년 6일 전쟁 참전. 강력한 팔레스타인 지지.
- 2006년 언론을 통해 나세르 총리의 부정부패 폭로하여 퇴진 시킴. 나세르 총리가 코라피 국회의장, 상인엘리트 가문과 연대하여 쿠데타 모의 시도 폭로.

- ❖ **무함마드 알-사바흐 알-살림(65세)**
- **경력:** 1985년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주 미 대사 1998-2001, 외교담당 국무장관 2001-2003, 외교장관 2003-2006, 부총리 2006-2011. 국가안보회의 위원 2003-2011, 석유최고위원회 위원 2003-2011, 경제기획개발위원회 위원 2006-2011. 옥스퍼드대학교 초빙교수 2012-현재.
- 2006년 나세르 총리의 뇌물 스캔들 등 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대한 회의로 공직 진출 꺼림. 권력의지 약함.
- 그동안 왕권 경쟁에서 한 축을 담당한 살림 가문의 거의 유일한 왕세자 후보.
- 차기 왕세제 임명 가능성 5%(Courtney Freer 2020).
- 부정부패 개혁에 적극적. 사우디-카타르, 사우디-이란 갈등과 같은 지역 분쟁에서 중재 역할 강조.
- 자비르-살림 두 가문 간 왕권 교체여론이 등장하면 그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 ❖ 사바흐 알-칼리드 총리(67세)
- 경력: 주 사우디 대사 1995-1998, 국가안보회의 의장 1998-2006, 사회노동장관 2006-2007, 정보장관 2007-2010, 부총리 겸 외교장관 2011-2019. 제1부총리 2013-2019. 총리 2019-현재.
- 자비르-살림 가문이 아닌 하마드가문 출신. 그도 무바라크 대장의 손자로서 쿠웨이트 국왕이 될 자격은 갖추었으나 왕가 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형편. 그러나 그의 공직 경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그의 형 아흐마드 알-칼리드는 부총리 겸 국방장관(2012-2013), 그의 동생 무함마드 알-칼리드는 부총리 겸 내무장관(2013-2017)을 역임했다.

- ❖ 자비르 알-무바라크 총리(78세)
- 경력: 사회노동장관 1986-1988, 정보장관 1988-1990, 국방장관 1991-1992, 2001-2011, 내무장관 2006-2011, 부총리 2001-2006, 제1 부총리 2006-2011, 총리 2011-2019.
- 자비르-살림 가문이 아닌 하마드가문 출신. 그도 무바라크 대장의 손자로서 쿠웨이트 국왕이 될 자격은 갖추었으나 왕가 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형편. 그러나 그의 공직 경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나세르 알-사바흐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그의 국방장관 재임 시 부패 혐의로 공격 받음.
- 부족주의, 아랍민족주의와 연계. 친 이란 경향을 보이는 나세르 알-무함마드 전총리와 적대관계.

- The End -

“코로나19와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취약성”

김은비 (국방대), 황의현 (한국외국어대), 이경수 (한국외국어대)



발 표 구 성

- 1 연구 개요 및 목적
- 2 신조주의 체제의 특성과 취약성
- 3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특성
- 4 코로나19 위기와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 취약성
- 5 위기 속 레바논의 생존전략 : 신조주의 체제 유지
- 6 결 론

1 연구 개요 및 목적

글로벌 위기 속 중동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경제 활동 중단 (관광업 피해 大)

저유가로 인한 경제 타격 (산유국/비산유국 공통)

감염 확산 불안과 경제난 속 국민의 **반정부 감정 고조**

글로벌 위기는 중동 각국의 **정치·경제구조상 취약성 노출**

confessionalism

신조주의 체제인 레바논의 취약성과 생존전략은 ?

2 신조주의 체제의 특성과 취약성

consociational democracy

협의제 민주주의의 한 형태 Abu Latif 2015; Bahoui 2017; Dixon 2011; Salamey and Payne 2008; Salamey 2009

협의제 민주주의를 사회적 다양성이 높은 국가에서의 안정적 민주주의 정착 수단으로 제시

다수 집단의 권력 독점과 소수 집단의 배제 현상 방지 가능

Lijphart 1969; 2004

각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의 대연정, 비례원칙, 상호 거부권, 자치권 보유 Lijphart 1977, 25

ethnic identity

종족 정체성(종교, 종파, 민족 등) 따라 정당·정치조직 결성 → 종족 집단이 주요 정치 행위자 기능

ethnocracy

서구의 협의제 민주주의와 구분하여 종족 정치체제로 정의 Howard 2012, 155

제도적 특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내각제, 인구비례에 따른 정부 주요 직책의 분배

2 신조주의 체제의 특성과 취약성

정파이기주의 만연

정파이익 극대화 위해 중앙정부 정책추진에 대한 의도적 방해 유인 존재

상호 견제 권한을 다른 집단의 영향력 강화저지 수단으로 이용 → 제로섬 게임 성격의 정치

핵심 정책결정 사안에서 정파간 대립 장기화

clientelism

후견주의 : 정치 지도자와 정파 사이 상호 부조 관계 형성

국가예산 통제권을 악용한 특혜부여와 정치적 지지의 교환

국가예산의 사유화 현상 발생

신조주의 체제의 취약성인 정파갈등, 후견주의, 부패
위기상황에서의 국가 대응 능력 약화

3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특성

국가 주요 요직 권력 분배 (1943년 국가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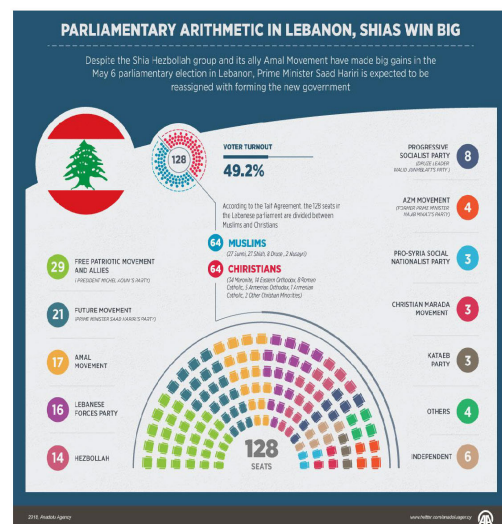
대통령 : 마론파 기독교도

총리 : 순니파 무슬림

국회의장 : 쉬아파 무슬림

의회 의석수 동일 분배 (1990년 타이프 협약)

기독교도(64석) : 무슬림(64석)



3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특성

'백향목 혁명(2005년)'과 시리아군의 철수 이후 레바논 정치의 교착상태 장기화

'3월 8일 연합(친시리아파)' vs. '3월 14일 연합(반시리아파)'

3월 8일 연합 March 8 Alliance	3월 14일 연합 March 14 Alliance
쉬아파 헤즈볼라 Hezbollah	순니파 미래운동 Future Movement
쉬아파 아말 Amal	마론파 카타입 Kata'ib
마론파 자유애국운동 Free Patriotic Movement	마론파 Lebanese Force

신임 대통령 선출(2014년 - 2016년), 세 차례의 총선연기(2013년 - 2018년),
2018년 총선 이후 내각 구성(2018. 5월 - 2018. 1월)

3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특성

“결정하지 않는 정치” 고타 2016, 157

주요 의사결정 지연·회피 : 정파간 대립에 따른 교착상태 및 내전 회피 목적

개혁 정책 추진 무관심

중앙정부의 공공 서비스 제공 능력 및 위기대처능력 저해

각 정파 지도자(Zu'ama, زعماء)의 권력 집중 및 남용

정실주의·부패, 국가기관의 영지화 및 국가자산·공공서비스의 사유화 Sailoukh 2017, 224-226

공공분야 고용과 복지 혜택을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 수단으로 활용

* GDP 170%에 달하는 대외 부채로 정부 재정부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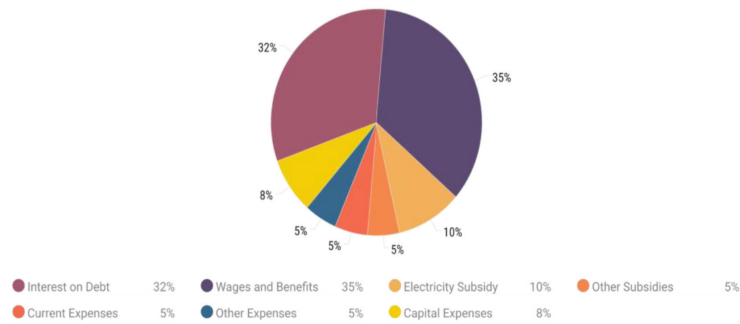
저급 공공 서비스로 국민적 불만 증대

베이루트 쓰레기 시위(2015년 - 2016년), 증세 반대 시위(2019년)

3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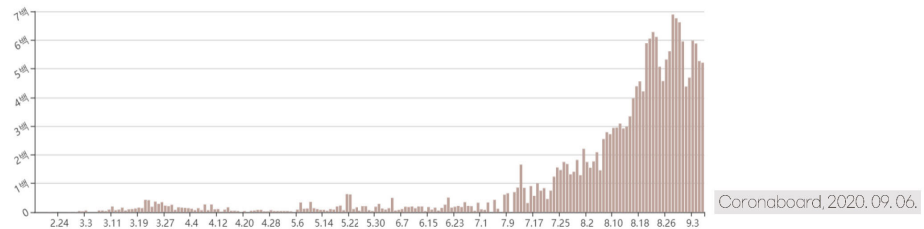
Distribution of Lebanese Government Expenses for 2018

Compiled by Dr. Jad Chaaban using Ministry of Finance Data



Jad Chaaban, "Lebanon Needs A Budget For Its People, Not Its Ruling Class." Beirut Today, 2019.04.23.

4 코로나19 위기와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 취약성



기존의 문제 노출·심화 : 취약한 행정능력, 부패로 인한 국가 재정난 등

경제적 피해 : 레바논 경제의 80% 차지하는 서비스업(관광업, 금융업, 요식업 등) 타격

외화 송금액 감소 : 걸프 내 레바논인 노동자 구직난

→ 리라화 가치하락과 물가상승으로 국민 생활고 심화

저급 공공 서비스로 국민적 불만 증대

채무상환유예 선언(2020. 3. 7.), 코로나19로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상황

4 코로나19 위기와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 취약성

2020. 8. 4,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의 취약성 노출 사례

중앙정부의 무책임·무능 : 폭발물질 방치, 관세청·항만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불가

→ 각기 상이한 정파 통제

Macaron, 2020.08.07.

중앙정부 및 주아마들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불만 → 반정부 시위로 폭발

신조주의 체제 해체 및 정치체제 전면적 개혁 요구

시위간 대규모 부상자 발생으로 의료 여력 한계

코로나19의 폭발적 전파



4 코로나19 위기와 레바논 신조주의 체제 취약성

신규 내각 구성 지연 : 고질적 정파간 갈등

2020. 8. 10, 디얍(Hasan Diab) 총리와 전체 내각 사퇴

2020. 8. 31, 아딕(Mustafa Adib)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

* 미카티(Najib Mikati) 전 총리와 가까운 기존 정치 세력의 일원

* 복수 정파의 지지에도 허울 뿐인 총리 교체에 불과하다는 평가 Azhar, 2020.08.31.

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력은 ?



5 위기 속 레바논의 생존전략 : 신조주의 체제유지

상대 정파에 대한 적의와 반감 조장 (정파 결속력 향상 의도)

“폭발 배후에 헤즈볼라가 있다” vs.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쟁 정파의 유연비어이자 선동”

미국과 이스라엘 및 레바논 내 동맹세력의 연루 의혹 제기

“폭발 사건의 근본적 책임은 2005년 부터 집권해 온 반헤즈볼라 연합에 있음”

“폭발 사건은 레바논 기독교도를 축출하기 위한 음모”

시위 진압

2020. 8. 13. 레바논 의회, 베이루트에 긴급사태 선포

* 군대가 체포, 검문, 가택수사, 집회 금지, 언론 통제 가능



6 결 론

글로벌 위기의 영향·대응은 국가별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이

2020년 이전 각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 필요

코로나19 범유행 같은 대규모 위기는 신조주의 체제 하 레바논의 취약성을 극명히 노출

폭발사건은 국가 취약성(정부의 무능력, 정파 이기주의·부패)의 산물로, 반정부 시위 촉발

각 정파는 합치 통한 위기극복보다는 정파별 결속력 향상 통한 신조주의 체제 유지 집중

반정부 시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사태 선포, 기성 정치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의 총리 지명, 외세와 타 정파에 대한 음모론 제기 등의 행보

정파의 존속과 정치적 영향력을 레바논 안보 및 주권과 동일시하는 레바논 신조주의의 특징

주아마들은 체제 개혁 노력보다는 기득권 상실 방지 위한 현 체제 유지 선호 전망

참고자료

- Al-Amin, Ibrahim. "رداعات 2005 - 2006 تعود محلياً وخارجياً، مخاطر الحسابات الخاطئة." *Al-Akhbar*, 2020.08.06.
- Al-Ra'i. "نصر الله: قوى مبدسة في لبنان حاولت استغلال الانتفاضة بيروت للضغط على الرئيس للاستقالة." 2020.08.14.
- Azhari, Timour. "Mustapha Adib on course to be designated Lebanon PM." *Al-Jazeera*, 2020. 08.31.
- Bahout, Joseph. "The Unraveling of Taif: The Limits of Sect-Based Power-Sharing in Lebanon." In *Beyond Sunni and Shia: The Root of Sectarianism in a Changing Middle East*, edited by Frederic Wehrey, 135-156. London: Hurst & Company, 2017.
- Dixon, Paul. "Is Consociational Theory the Answer to Global Conflict? From the Netherlands to Northern Ireland and Iraq." *Political Studies Review* 9 (2011): 309-322.
- Howard, Lise Morjé. "The Ethnocracy Trap." *Journal of Democracy* 23, no. 4 (October 2012): 155-169.
- Joe Macaron. "Lebanon is on track to become a failed state." *Al-Jazeera*, 2020. 08. 07.
- Lipphart, Arend. "Consociational Democracy." *World Politics* 21, no. 2 (January 1969): 207-225.
- Lipphart, Arend. *Democracy in Plural Societies: A Comparative Explo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Lipphart, Arend. "Constitutional Design for Divided Societies." *Journal of Democracy* 15, no. 2 (April 2004): 96-109.
- MEMRI. "Senior Hezbollah Official Ammar Al-Mousawi: Anti-Hezbollah Campaign Following Beirut Port Blast Raises Suspicion That Hezbollah Rivals Were Behind The Blast." 2020.08.25.
- MEMRI. "Lebanese MP Nicholas Sehnaoui: Beirut Port Blast - A Conspiracy To Drive Christians Out Of The Country, Like In The Case Of Hiroshima And Nagasaki." 2020.08.25.
- MENA Research Center. "Emergency Law Passed Lebanese Parliament: New Disaster For Lebanon." 2020.08.17.
- Salamy, Imad. "Failing Consociationalism in Lebanon and Integrative O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14, no. 2 (Autumn/Winter 2009): 83-105.
- Salamy, Imad and Rhys Payne. "Parliamentary Consociationalism in Lebanon: Equal Citizenry vs. Quotated Confessionalism."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4, no. 4 (2008): 451-473.
- Salloukh, Bassel F. "The Architecture of Sectarianization in Lebanon." In *Sectarianization: Mapping the New Politics of the Middle East*, edited by Nader Hashemi and Danny Postel, 215-23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Tayyar.org. "بالمسور: - منظمو مشائق الساحرة يكلفون عن هويتهم: نحن مع هؤلاء و نضحك على الفلبي." 2020.08.08.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동지역 미중 전략경쟁”

김강석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동지역 미중 전략경쟁

김강석

2020년 9월 12일

● 코로나19와 글로벌 미중 전략경쟁 심화

- 오바마 행정부 후기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은 코로나 사태로 더욱 치열해 지고 있음
 - 미국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2020.7)
 - 남중국해 등 군사적 긴장 고조
-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
- 최근 글로벌 미중 경쟁의 진영화와 함께 경쟁 구도가 가치와 제도(ex. 중국 모델)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

트럼프 시대 중동 미중 전략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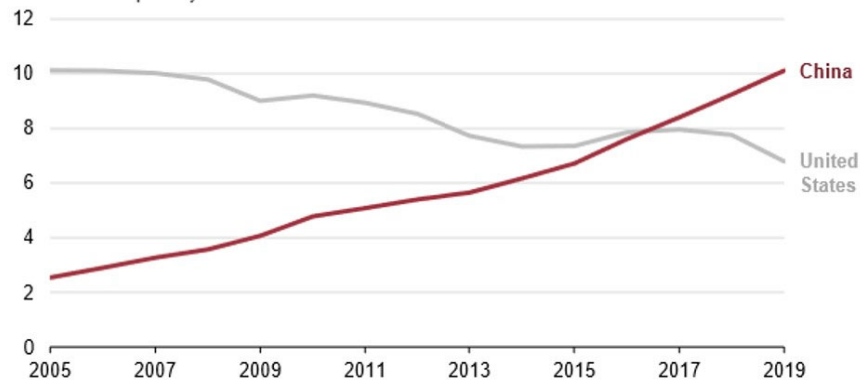
-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개입축소(Retrenchment) 전략
- 중동 지역 위협에 대한 재평가 & 에너지 의존도 감소
- 자유 국제주의 외교전략의 수정
- 시진핑의 중국, 중동 지역 팽창 가속화
- 시진핑의 중동 순방(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방문) 및 아랍 국가전략 발표(2016) & 중동 지역 일대일로 적극 추진



미중 석유 수입

China and United States annual crude oil imports (2005-2019)

million barrels per day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지역 패권유지 추구

- 트럼프 행정부의 IMSC 창설 주도(2019.9)
- 걸프 지역 안보를 위한 동맹국의 부담 요구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지역 패권유지 추구

- 2020년 8월 UAE-이스라엘 관계정상화 중재
- 이란 봉쇄 및 경제협력 목적 외 중국 견제 의미라는 분석도 있음
- 해상 안보동맹 결성(maritime security alliance)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견해



Hidden seams in the UAE-Israel deal

BEN SCOTT

It's all about Iran, right? Actually, the agreement has more to do with managing the US and China.



Israel and United Arab Emirates flags line a road in the Israeli city of Netanya, 16 August 2020 (Jack Quast/APF via Getty Images)

Published 21 Aug 2020 09:00 0 Comments China Diplomacy Middle East Follow @Ben_Scott

This Week in Asia / Politics

China: America's hidden target in Trump's 'historic' Israel-UAE deal?



중국의 중동 지역 팽창

- 중국과 걸프 아랍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
 - 해상 실크로드 추진과 주요 항구 개발
- 미국 견제의 의미로써 중국-이란 협력
 - 미국에 대한 공통의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중국과 이란 간의 관계 강화
 - 현재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
 -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무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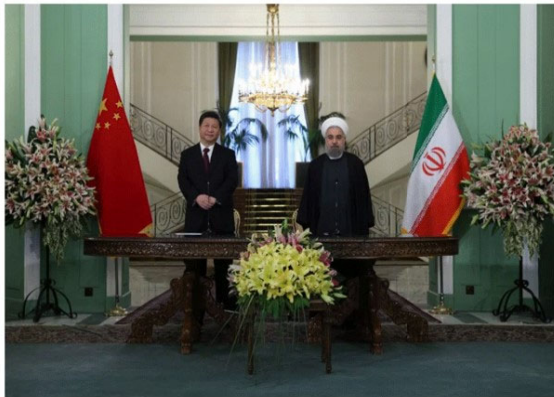
Ports in a storm

- Operational ports
- Industrial zones, under construction
- Under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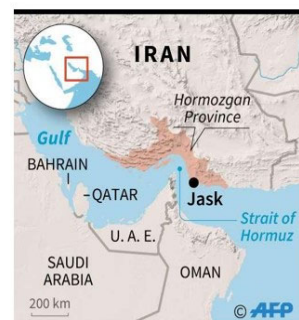


SCMP

What China's New Deal with Iran Says About Its Ambitions in the Region



President of China Xi Jinping and President of Iran Hassan Rouhani make statements after signing of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Iran and China at Sadabad Complex in Tehran, Iran on January 23, 2016. Anadolu Agency/Getty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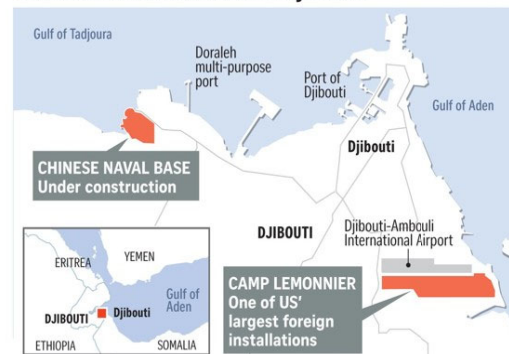


<https://time.com/5872771/china-iran-d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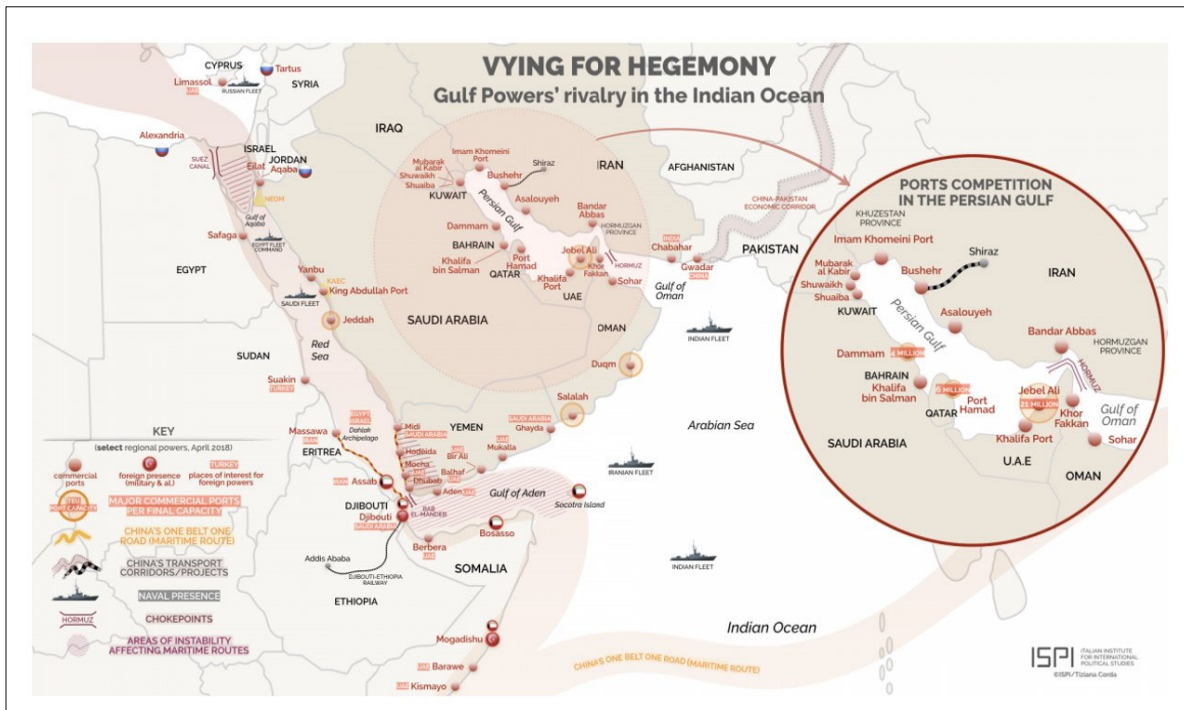
중국의 군사기지과 중동 지역 팽창

- 중국 지부티 군사기지 건설(2017)
- 중동 지역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 강화

Chinese and US bases in Djibouti



Source: THE NEW YORK TIMES STRAITS TIMES GRAPHICS



“2019~20년 이스라엘 총선에서 나타난 군의 정치 총원 및 그 정치적 함의” - 2020년 3월 총선을 중심으로 -

안승훈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2020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20년 이스라엘 총선에서 나타난 군의 정치 총원 및 그 정치적 함의 - 2020년 3월 총선을 중심으로 -

-목 차-

1. 서론
2. 제23대 이스라엘 3월 총선 평가
3. 이스라엘 군의 정치 총원 배경
4. 이스라엘 안보공동체
5. 결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안 승 훈

2020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1. 서론

1. 제35대 이스라엘 내각 진출 주요 군 장성



Former army chief of staff Benny Gantz, left, mounted a campaign to unseat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ikimedia Commons)



1. 이스라엘 정치와 이스라엘 군



Israel's most recent ex-army chief Benny Gantz would defeat Benjamin Netanyahu if a race for the prime ministership were held today, according to a Channel 2 survey Saturday night. Gantz is a far more popular choice than Netanyahu for prime minister when not identified with any particular political party, the survey found. Even more impressively, he still narrowly beats Netanyahu at the head of a center-left party.



Haaretz poll: Israelis have had enough of Netanyahu and are ready for a new political order; IDF chief Eisenkot is crowned Israel's most popular leading figure.

1. 제35대 이스라엘 내각 진출 주요 군 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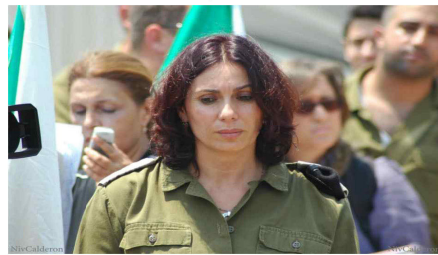
Foreign Minister, Blue and White, Gabi Ashkenazi



Education Minister, Likud, Yoav Galant



Jerusalem Affairs Minister, Yamina, Rafi Peretz



Transportation Minister, Likud, Miri Regev

1. 1990s~2015 군 장성 출신 주요 정치인들



Yitzhak Rabin (1922-1995)



Ehud Barak (1942-Present)



Ariel Sharon (1928-2014)



Shaul Mofaz (1948-Present)



Moshe Dayan (1915-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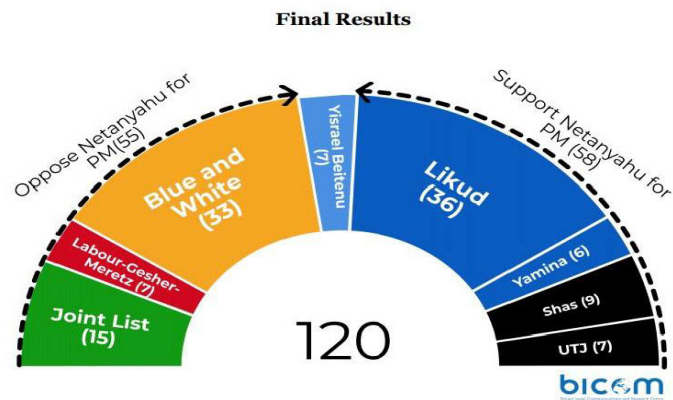
2. 제23대 3월 총선 평가

<2020년 3월 총선 결과>

정당명	당수	득표율%	의석수	증감(±)
리쿠드	Benjamin Netanyahu	29.46%	36	+4
청백당	Benny Gantz	26.59%	33	0
아랍연합리스트	Ayman Odeh	12.67%	15	+2
샤스	Aryeh Deri	7.69%	9	0
연합토라당	Yaakov Litzman	5.98%	7	0
노동당-게세르-메레쯔	Amir Peretz	5.83%	7	-3
이스라엘 베이테이뉴	Avigdor Lieberman	5.74%	7	-1
야미나	Naftali Bennett	5.24%	6	-1

2020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2020년 3월 총선 결과>



출처: <https://aijac.org.au/update/the-aftermath-of-israels-march-2-election/>

2020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제34대 이스라엘 내각 정당 별 현황>

친 청백당 진영			친 리쿠드당 진영		
정당	의석수	내각 참여	정당명	의석수	내각 참여
청백당	33	12	리쿠드	37	15
노동당	2	2	샤스당	9	2
데르케 에레쯔당	2	1	연합토라당	7	1
-	-	-	계세르당	1	1
총합	37	15	총합	54	19

2020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2020년 이스라엘 3월 총선의 평가>

1. 네타냐후 체제에 대한 미완성 평가
2. 청백당의 미완성 선전
3. 노동당의 쇠퇴
4. 아랍 진영 및 유대 종교 정당 진영의 선전
5. 이스라엘 군의 정치 충원 재개

2020년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선거 이후 전망>

1. 대연정의 구조적 취약성과 붕괴 가능성
2. 중도 정당 청백당의 미래 불투명
3. 노동당의 쇠퇴 심화
4. 이스라엘의 우경화 심화와 아랍 진영의 정치 연대화 강화
5. 이스라엘 군 출신 정치인의 정치 참여 확대 가능

3. 이스라엘 군의 정치 충원 배경

3. 군의 정치 충원 요인(1)

▶ 군 장성의 정치 충원 요인

√ 외적 요인

1. 외교적 안보 위협
2. 저강도 분쟁

√ 내적 요인

3. 정당 및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
4.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정당간 경쟁

3. 군의 정치 총원 요인(2)

1) 외부적 안보 위협

- ✓ 6차례에 걸친 아랍과의 전쟁 및 상시적 안보 위협
- ✓ 반유대주의 (지역적, 국제적 수준)
- ✓ 홀로코스트와 역사적 대학살의 트라우마
- ✓ 1973년 욘 키푸르 전쟁(The 1973 Yom Kippur War)
과 1982년 레바논 전쟁
- ✓ 이스라엘의 강력한 '안보주의(securitism)'

3. 군의 정치 총원 요인(3)

2)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s): 팔레스타인 분쟁

- ✓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와 헤즈볼라와의 상시적 무력 충돌
 - * Fatah, Hamas, Islamic Jihad, and Hezbollah
- ✓ 1987년 제1차 인티파다와 2001년 제2차 인티파다
- ✓ 2008년과 2014년 가자 전쟁
- ✓ 2013년 이후 제3차 인티파타

3. 군의 정치 총원 요인(4)

3) 정당 및 정치 체제의 상대적 불안정성

- √ 비례 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정당 의회제도
- √ 과반수 정당의 부재와 소수 정당의 난립
- √ 리쿠드(Likud)와 노동당 (Labor)을 양 축으로 하는 연립정부 출현
- √ 상시적인 연립 정부의 붕괴 노출

3. 군의 정치 총원 요인(5)

4) 리쿠드당과 노동당의 정당간 군 지도부 영입 경쟁

- √ 1977년 선거 노동당 일당 체제 붕괴와 리쿠드당의 집권 성공
- √ 중도표 및 부동표 흡수를 위한 두 정당의 선거 경쟁
- √ 안보 이슈 선점을 위한 두 정당의 경쟁
- √ 군 지도부 영입을 통한 정당의 안보 신뢰성 확보
- √ 군 지도부, 퇴임 후 정치 영역의 참여를 관례화 발생

4. 이스라엘 안보 공동체

4. 이스라엘 안보공동체 구조(I)



Source: Drawn by Author Based on Gibson & Snider 1999, 195

4. 이스라엘 안보공동체 구조(2)

▶ 이스라엘 안보공동체의 구성

1) 이스라엘 군 지도부:

- 이스라엘 군 내부의 고위 장교 집단 (+ 이스라엘 정보기관들, 경찰 조직, 군 산업체 고위 임원진, 안보 싱크탱크...)

2)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

- 이스라엘 정치 영역에서 활동 중인 고위직 군 장성 출신 정치 집단

▶ 이스라엘 안보공동체의 특징

- 이스라엘 군 지도부와 정치, 안보, 외교 영역에서 활동 중인 군 지도부 출신 정치인 및 관료
- 안보 및 외교 정책 수립, 결정, 집행 등 전 과정에 개입
-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제한적, (상대적) 폐쇄 정책 결정
- 특정 외교 안보 이슈 및 정책에 대한 독점적 위치 장악

4. 이스라엘 안보공동체 구조(3)

√ 안보공동체의 공유된 가치와 인식

- 안보주의(Securitism) 중심과 민간 영역의 안보화 필요
- 민간 영역에 대한 군의 영향력 우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 및 합의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최우선 주의 지향
- 안보공동체의 인지적 권위(Epistemic Authority)의 수용
- 안보공동체의 집단적 결집력

4. 안보 공동체의 발전

▶ 이스라엘 안보 공동체의 발전 단계

- 제1단계: 이스라엘 건국 이전 시기(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시기)
- 제2단계: 벵구리온의 軍에 대한 民의 강력한 우위력 확보 시기
(안보공동체의 형성기)
- 제3단계: 안보 공동체의 발전 시기(6일 전쟁과 옴키푸르 전쟁)
- 제4단계: 안보 공동체의 고정화 시기(제1차 인티파다 이후)

4. 안보 공동체의 발전

제4단계: 이스라엘 안보공동체의 고정화 시기

▶ 1987년 이후 저강도 분쟁 (Low-intensity Conflicts) 본격화

- √ 1987년 제1차 인티파다 이후 시기
- √ 비 국가조직(Non-state Militant Groups)과의 저강도 분쟁; Hamas, Fatah..
- √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발발
- √ 이스라엘 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의 등장=> 전통적 안보 개념의 변화
- √ 이스라엘 군의 안보 역할 확대(주변 아랍국가 +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 √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변화: 군사적 해결 + 외교적 방식
- √ 이스라엘 군 지도부의 정치 및 정책 간섭 및 개입 고정화



4.안보 공동체와 오슬로 평화 협정 체제

정부	정치지도부(Politician Echelon)			군 지도부 (Military Echelon)
	수상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군 참모총장(CGs)
라빈 정부 (25 th : '92.07 - '95.11)	Yitzhak Rabin (M)	Shimon Peres (M)	Yitzhak Rabin (M)	Ehud Barak
페레스 정부 (26 th : '95.11-'96.06)	Shimon Peres (M)	Ehud Barak (M)	Shimon Peres (M)	Amnon Lipkin-Shahak
네타냐후 정부 (27 th : '96.07 - '99.07)	Benjamin Netanyahu (C)	David Levy (C) Benjamin Netanyahu (C) Ariel Sharon (M)	Yitzhak Mordechai (M) Moshe Arens (C)	Amnon Lipkin-Shahak Saul Mofaz
바라크 정부 (28 th : '99.07- '01.03)	Ehud Barak (M)	Shlomo Ben-Ami (C)	Ehud Barak (M)	Saul Mofaz
샤론 정부 (29 th : '01.03 - '06.04)	Ariel Sharon (M)	Shimon Peres (M) Ariel Sharon (M) Benjamin Netanyahu (C)	Benjamin Netanyahu (C) Shaul Mofaz (M)	Saul Mofaz Moshe Ya'alon

(M): Military High Ranking Career, (C): Civilian Career (Israel Government Portal, 2014)

2020년 한국중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5. 결 론

1. 이스라엘의 우경화 강화 및 좌파 진영의 쇠퇴
2. 네타냐후 체제에 대한 지속성 의문 제기
3. 이스라엘 아랍 진영의 연대 강화 및 정치적 정체성 강화 추구
4. 反 네타냐후 진영의 대응: 군 출신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 참여
5. 중도당 및 간츠의 도전과 한계

간츠 Vs 네타냐후 ?



경제분과

사회: 김중관 (동국대)

“OPEC플러스(+) 출범배경 및 감산합의 진행현황과 석유시장 전망”

발표: 송상현 (단국대)

토론: 백승훈 (한국외국어대)

“중동주요국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분석”

발표: 신상윤 (숭실대)

토론: 이권형 (KIEP)

“OPEC플러스(+) 출범배경 및 감산합의 진행현황과 석유시장 전망”

송상현 (단국대)

OPEC플러스(+) 출범배경 및 감산합의 진행현황과 석유시장 전망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송상현

목차

1. 서론
2. OPEC의 유가방어 전략과 OPEC플러스(+의 출범 배경
 - 1) OPEC의 시장점유율 유지전략
 - 2) OPEC의 정책 전환과 OPEC+의 출범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 1) 일일 180만 배럴 감산 합의(2017.01.01. ~ 2018.12.31.)
 - 2) 일일 120만 배럴 감산 합의(2019.01.01. ~ 2019.12.31.)
 - 3) OPEC+ 갈등과 기간별 감산 합의(2020.01.01. ~ 현재)
4. 석유시장 전망과 OPEC+의 미래

1. 서론

- 오늘날 저유가 상황은 공급과잉이라는 석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시작됨
-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에 대한 OPEC의 초기 대응은 회원국들의 원유 공급을 그대로 둔 채 수요증가를 통한 유가 상승 → 예상과 달리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로 인하여 2019년 9월 시장점유율 유지에서 유가 방어로 전략을 수정
- OPEC이 감산을 통한 유가방어 전략 수정과정에서 11개 비OPEC 산유국들도 감산 협력에 동참하면서 OPEC플러스(+) 출범
- OPEC+ 출범배경과 감산 합의 및 이행이 석유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석유시장 전망을 통하여 OPEC+의 미래를 예측

2. OPEC의 유가방어 전략과 OPEC+의 출범 배경

1) OPEC의 시장점유율 유지 전략

- 북미지역에서 셰일오일과 오일샌드 같은 비전통적인 석유의 생산량 증대로 2014년 하반기부터 석유 시장은 공급과잉과 함께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 증대
- <제166차 OPEC 정기총회> 때 이란과 베네주엘라를 비롯한 대다수 OPEC 회원국들은 감산을 통한 유가 방어를 원하였지만, OPEC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점유율 유지전략을 주장
- 이란과 베네주엘라를 비롯한 대다수 OPEC 회원국은 감산을 통한 유가 방어를 원하였지만, OPEC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점유율 유지전략을 주장

2. OPEC의 유가방어 전략과 OPEC+의 출범 배경

<초기 시장점유율 유지 전략 선택 배경>

내부적 요인



☐ 1980년대 유가방어 실패 경험

☐ 풍부한 외환 보유고

☐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유가

외부적 요인



☐ 중동지역 전통의 라이벌 이란 견제

☐ 석유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

☐ 석유시장의 수요 증대 기대

2. OPEC의 유가방어 전략과 OPEC+의 출범 배경

2) OPEC의 정책전환과 OPEC + 출범

-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생산단가가 배럴당 약 40달러까지 하락한 셰일오일이 유가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
- 석유 수요도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으면서 2016년 1월에는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까지 하락 → 2016년 들어 시장 점유율 유지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 필요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문제점(외환보유고 감소, 재정적자 폭 확대) 대두 → '사우디비전 2030'을 통한 경제 다각화에서 해법을 찾음
- 경제 다각화에 필요한 재원을 아람코 IPO와 지분매각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아람코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감산 정책으로 전환을 통한 국제유가 부양이 필요
- 2016년 9월 28일 제170차 OPEC 임시총회에서 마침내 회원국들이 유가 인상을 위한 감산의 큰 틀에 합의
- 11월 30일 제171차 OPEC 정기총회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루 최대 생산량 목표를 3,250만 배럴로 정하고 일일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

2. OPEC의 유가방어 전략과 OPEC+의 출범 배경

2) OPEC의 정책전환과 OPEC + 출범

- 2015년 OPEC은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3%를 차지하면서 자신들 힘만으로 국제 유가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
- 13개 OPEC 회원국은 2016년 12월 10일 러시아를 비롯한 11개 비OPEC 회원국과 함께 감산 협력을 통한 유가 방어에 합의
- OPEC플러스(+) 주요산유국연합체가 출범을 통해 세계 원유시장에서 OPEC+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 정도로 이들 산유국의 감산 합의와 이행은 유가의 빠른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OPEC+의 출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각각 일일 1,019만 배럴과 1,011만 배럴을 생산하는 생산량 세계 1, 2위의 국가로 세계 원유생산량의 27.1%를 차지

2. OPEC의 유가방어 전략과 OPEC+의 출범 배경

사우디아라비아

- 중국의 G2 부상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아시아 중심정책(Pivot to Asia)이 본격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에너지 및 경제·외교안보 협력 필요성 증대
-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과 미군의 시리아 내전 소극적인 개입에 불만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방의 봉쇄 조치로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처한 러시아로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강화가 전략적으로 중요
-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투자 유치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1) 일일 180만 배럴 감산 합의(2017.01.01. ~ 2018.12.31.)

<OPEC 총회 및 OPEC+ 각료회의 주요 합의 사항(2016. 11. 30. ~ 2018. 06. 23.)>

날짜	OPEC총회 & OPEC+각료회의	주요 합의 내용
2016.11.30	제171차 OPEC 정기총회	-알제리에서의 합의에 따라 최대 일일 생산량 목표를 3,250만 배럴로 합의(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여 6개월간 유지) -OPEC 목표생산량 달성을 위해 일일 120만 배럴 감산 예정(2016년 10월 생산량 대비)
2016.12.10	제1차 주요산유국연합체(OPEC+) 각료회의	-Declaration of Cooperation: OPEC(13개 회원국: 알제리, 앙골라, 에콰도르, 가봉,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및 비OPEC(11개국: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브루나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멕시코, 오만, 러시아, 수단, 남수단공화국) 국가 간 협력 선언* -비OPEC 국가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일평균 석유 생산량을 55만 8,000배럴 줄이기로 약속(목표 60만 배럴에 약간 부족) -나이지리아와 리비아는 감산에서 제외 -산유국들은 감산 합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3개 회원국과 2개 비회원국이 참여하는 산유량 감시위원회 출범계획
2017.05.25	제172차 OPEC 정기총회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까지 9개월간 현재 산유량 감산 규모를 연장 적용 -적도기니의 OPEC 회원국 가입 승인
2017.05.25	제2차 OPEC+각료회의	-14개 OPEC 회원국과 10개 비OPEC 국가는 2017년 1분기 기간 일일 180만 배럴을 감축하였으며 7월 1일부터 9개월간 현재 규모의 감산 유지 합의
2017.11.30	제173차 OPEC 정기총회	-2018년 말까지 9개월 동안(2018.04~2019.12) 현재의 산유량 감산 규모 유지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1) 일일 180만 배럴 감산 합의(2017.01.01. ~ 2018.12.31.)

날짜	OPEC총회 & OPEC+각료회의	주요 합의 내용
2017.11.30	제3차 OPEC+각료회의	-러시아 등 비OPEC 10개국도 2018년 한 해 동안 감산 연장에 합의
2018.06.22	제174차 OPEC 정기총회	-OPEC은 2018년 5월 기준 감산 목표를 152%(171차 OPEC 정기총회에서 정한 일일 120만 배럴 감산 목표 대비) 달성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나머지 감산 기간 동안 100%까지 감산 목표를 준수하기로 결정 -2018년 5월 기준 일평균 280만 배럴의 감산이 이루어져 약 100만 배럴 가량의 원유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분석 -콩고 OPEC 회원국 가입 승인
2018.06.23	제4차 OPEC+각료회의	-2018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감산 기간 동안 감산 목표 100% 자발적 준수

출처: OPEC Press Releases와 각종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인도네시아는 원유감산분담 거부로 OPEC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었다.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1) 일일 180만 배럴 감산 합의 기간(2017.01.01. ~ 2018.12.31.)

<OPEC+의 2016년 10월 일일 생산량과 일일 목표 감산량 및 목표 생산량>

(단위: 1,000배럴)

OPEC 회원국	생산량(2016.10)	목표 감산량	목표 생산량	비OPEC 회원국*	생산량(2016.10)
알제리	1,089	50	1,039	아제르바이잔	759
앙골라	1,753	80	1,673	바레인	197
에콰도르	548	26	522	브루나이	125
가봉	202	9	193	적도기니	234
이란*	3,709	+90	3,797	카자흐스탄	1,353
이라크	4,561	210	4,351	말레이시아	557
쿠웨이트	2,838	131	2,707	멕시코	2,017
리비아	528	N/A	N/A	오만	923
나이지리아	1,615	N/A	N/A	러시아	10,512
카타르	648	30	618	수단	76
사우디아라비아	10,544	486	10,058	남수단공화국	104
아랍에미리트	3,013	136	2,874		
베네수엘라	2,067	95	1,972		
총계	33,115	1,166		총계	16,857

출처: OPEC의 문서와 리포트를 종합한 OPEC 회원국 데이터와 IEA의 Monthly Oil Data Service로부터 취득한 비OPEC 데이터를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정리

* 2016년 10월 이란의 실제 생산량을 초과하여 감산 합의(397만 5,000 배럴)가 이루어져 이란의 생산량은 2017년 1월 OPEC의 Monthly Oil Market Report를 참고하여 작성

* 비OPEC 회원국의 국가별 감산량은 정하지 않았음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1) 일일 180만 배럴 감산 합의 기간(2017.01.01. ~ 2018.12.31.)

- 이 기간 OPEC+는 감산 목표량 이상의 감산을 이행하며 2017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

- OPEC 회원국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일일 약 3,163만 9,000배럴과 약 3,123만 8,000배럴을 생산. 이는 목표 생산량 3,250만 배럴에 못 미치는 수치로 OPEC 회원국이 감산 목표 이상을 감산하였음을 의미. 반면 비OPEC 회원국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일일 약 1,653만 4,000배럴과 1,654만 2,000배럴을 생산하면서 2016년 10월보다 생산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카자흐스탄과 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목표 감산량에 못 미침

- 2018년에는 OPEC+의 감산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인한 유가의 가파른 인상. OPEC+의 감산과 함께 2018년 초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상승.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18년 8월 7일부터 대(對)이란 제재 단계적 복원 발표. 그 결과 공급 위축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추가 상승

- 하지만 산유국들의 생산 담합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OPEC은 제174차 정기총회에서 7월 1일부터 생산량을 10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2018년 4분기부터 유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 7월 이란과 영국 간 유조선 억류 사건 및 미국의 이란 드론 격추 사건 그리고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과 같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요인으로 인하여 유가의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는 한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이란 제재를 의식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2018년 10월 중순 이후 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섬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2) 일일 120만 배럴 감산 합의 기간(2019.01.01. ~ 2019.12.31.)

<OPEC 총회 및 OPEC+ 각료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2018.12.06.~2019.07.02.)>

날짜	OPEC총회 & OPEC+ 각료회의	주요 합의 내용
2018.12.06	제175차 OPEC 정기총회	-OPEC은 2018년 10월 생산량 대비 일일 80만 배럴 감산(201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카타르 2019년 1월 1일자로 OPEC 탈퇴 결정 발표
2018.12.07	제5차 OPEC+ 각료회의	-OPEC 회원국은 하루 평균 80만 배럴, 비OPEC 회원국은 하루평균 40만 배럴 감산에 합의(201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일일 평균 총 120만 배럴 감산하며 감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량은 2018년 10월로 정함). 베네수엘라, 이란, 리비아는 감산 면제국가로 결정
2019.07.01	제176차 OPEC 정기총회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제175차 OPEC 정기총회에서 합의하여 진행했던 감산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연장 결정
2019.07.02	제6차 OPEC+ 각료회의	-제5차 OPEC+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여 진행한 감산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연장 결정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협력을 담은 Charter of Cooperation에 서명

출처: OPEC Press Releases와 각종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2) 일일 120만 배럴 감산 합의 기간(2019.01.01. ~ 2019.12.31.)

-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OPEC+는 유가 상승을 위하여 일일 120만 배럴 감산 합의와 연장에 동의하였고 이를 준수
- 2018년 12월 7일 제5차 OPEC+ 각료회의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OPEC 회원국은 일일 80만 배럴, 비OPEC 회원국은 일일 40만 배럴 감산에 합의. 일일 120만 배럴 감산은 전 세계 원유 수요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었는데 2018년 10월 일일 1,060만 배럴과 1,140만 배럴을 생산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각각 일일 32만 2,000 배럴과 23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함에 따라 두 국가가 전체 감산량의 약 46%를 떠맡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3월 일일 98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합의 이상의 감산을 이행하여 유가 반등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물량은 OPEC 전체 감산의 90%를 차지
- OPEC+의 감산, 2018년 12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따른 무역분쟁 완화, 그리고 4~5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봉쇄에 따른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면서 2019년 상반기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 까지 상승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2) 일일 120만 배럴 감산 합의 기간(2019.01.01. ~ 2019.12.31.)

-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와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로 5월 말부터 유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결국, OPEC+는 7월 2일 각료회의에서 6월 말로 종료된 일일 120만 배럴 감산 합의를 2020년 3월 말까지 9개월 더 연장
- OPEC+의 감산 노력으로 국제 유가는 2019년 하반기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배럴당 50~60달러의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 2019년 OPEC+의 생산량은 일일 평균 4,590만 배럴로 2018년 4,782만 배럴 대비 4% 감소. 세계 원유 수요증가율도 2018년 1.5%에서 2019년에는 0.9%로 감소. 2019년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침체로 인하여 글로벌 원유 수요회복이 더디게 나타난 결과
- 반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9년 1,223만 배럴로 2018년 1,099만 배럴 대비 약 11.3% 증가. EIA에 따르면 미국의 2018년 셰일오일 생산량은 일일 650만 배럴로 미국 전체 석유생산의 약 61%를 차지하였고, 2019년에는 일일 770만 배럴로 미국 전체 석유생산의 약 63%를 차지하였다. 2019년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은 2018년 대비 18.5% 증가한 수치로 2019년 미국 원유 생산 증가를 사실상 셰일오일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 2019년 OPEC+의 감산 합의 이행과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 증가 폭 둔화와 미국의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3) OPEC+ 갈등과 기간별 감산 합의(2020.01.01. ~ 현재)

<OPEC 총회 및 OPEC+ 각료회의 주요 합의 사항(2019.12.06.~2020.06.06.)>

날짜	OPEC총회 & OPEC+각료회의	주요 합의 내용
2019.12.06	제177차 OPEC 정기총회 & 제7차 OPEC+ 각료회의	-제175차 OPEC 정기총회와 제5차 OPEC+각료회의에서 합의된 2020년 1분기 감산량 일일 120만 배럴보다 50만 배럴 증가한 일일 170만 배럴 감산 결정(2020년부터 적용되나 감산 기간 연장은 불발되어 2020년 3월 말 재논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주요 산유국들의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통해 일일 210만 배럴 이상 감산(일일 40만 배럴 추가 감산) -OPEC 회원국은 원유, 비OPEC 회원국은 원유와 컨덴세이트까지 포함하여 산유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산유량 산정시 컨덴세이트 생산 물량은 제외하기로 결정(2019년 12월부터 적용)
2020.03.05	제178차 OPEC 임시총회	-제177차 OPEC 정기총회와 제7차 OPEC+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여 진행하였던 일일 170만 배럴 감산 조치를 2020년 12월 말까지 연장 결정 -제8차 OPEC+각료회의에 2020년 6월 말까지 추가로 일일 150만 감산 권고 결정(OPEC 일일 100만 배럴, 비OPEC 일일 50만 배럴) --> 발표 얼마 후 추가논의를 통하여 추가 감산 기간을 6월 말이 아닌 12월 말까지로 수정하기로 합의 -에라도르 2020년 1월 1일자로 OPEC 탈퇴 발표
2020.03.06	제8차 OPEC+ 각료회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일일 210만 배럴 줄어든 것을 근거로 OPEC의 일일 원유 생산량 150만 배럴 감산 제언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로 협상 결렬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3) OPEC+ 갈등과 기간별 감산 합의(2020.01.01. ~ 현재)

날짜	OPEC총회 & OPEC+각료회의	주요 합의 내용
2020. 04. 09	제9차 OPEC+ 임시각료회의 (화상회의)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일일 1,000만 배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일 800만 배럴,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일일 600만 배럴 감산 합의
2020. 04. 12	제10차 OPEC+ 임시각료회의 (화상회의)	-제9차 OPEC+ 임시각료회의 합의 결과에 대해 멕시코가 40만 배럴 감산을 반대하고 대신 10만 배럴 감산을 요구. 멕시코의 요구안을 수용하면서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일일 970만 배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일 770만 배럴,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일일 580만 배럴 감산 합의(2019년 10월 생산량 기준으로 감산하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예외적으로 일일 1,100만 배럴을 기준으로 감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각각 일일 250만 배럴씩 감산함으로써 일일 생산량을 850만 배럴로 유지 -4월부터 생산량을 늘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가 OPEC+의 감산량 이외에 일일 약 20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하기로 하면서 일일 감산량 970만 배럴을 4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일 1,200만~1,3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는 효과
2020. 06. 06	제179차 OPEC 정기총회 (화상회의) & 제11차 OPEC+ 각료회의 (화상회의)	-일일 970만 배럴 감산 규모를 7월까지 1개월 연장을 결정하였으며, 5~6월 생산쿼터를 초과해 생산한 산유국의 경우 9월까지 미준수 물량을 보전해 추가 감산하기로 합의 -사우디아라비아(일일 10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일일 10만 배럴), 쿠웨이트(일일 8만 배럴)는 7월부터 자발적인 추가 감산(일일 118만 배럴)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

출처: OPEC Press Releases와 각종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3) OPEC+ 갈등과 기간별 감산 합의(2020.01.01. ~ 현재)



VS



-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OPEC+의 오랜 기간 감산 협력에도 유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OPEC+ 내에서의 갈등이 2019년 말부터 감지. 2019년 12월 6일 제7차 OPEC 정기총회와 OPEC+ 각료회의에서 2020년 1분기 동안 기존의 일일 120만 배럴 감산보다 50만 배럴 증가한 일일 170만 배럴 감산에 합의. 하지만 감산 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으로 감산 기한이 종료되는 2020년 3월 말 감산 기간 추가 연장을 재논의하기로 함
- 유가 회복을 통해 아랍코의 기업가치를 키운 뒤 국내외 증시에 상장하여 '비전 2030' 산업 다각화 전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 조치를 2020년 6월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
- 러시아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와 함께 OPEC+ 감산이 오히려 미국의 원유생산량 증대를 가져왔다는 이유를 들어 감산 연장을 반대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3) OPEC+ 갈등과 기간별 감산 합의(2020.01.01. ~ 현재)

<OPEC, 러시아, 미국의 원유 생산량 비교(2016. 12 ~ 2020. 03)>



출처: Bloomberg, EIA, DCU-TEK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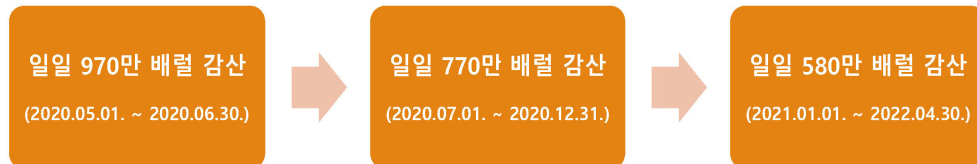
3) OPEC+ 갈등과 기간별 감산 합의(2020.01.01. ~ 현재)



- 코로나 19로 인하여 2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로까지 떨어지자 OPEC은 3월 5일 제177차 OPEC 임시총회를 열어 추가 감산을 논의. 이 자리에서 OPEC 회원국들은 제7차 OPEC+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일일 170만 배럴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합의. 이와 함께 제8차 OPEC+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원유 수요 감소(일일 210만 배럴 감소)를 근거로 비OPEC 회원국들에게 12월 말까지 일일 150만 배럴 추가 감산(OPEC 100만 배럴, 비OPEC 50만 배럴)을 권고하기로 동의. 하지만 다음날 러시아의 반대로 감산 협상이 결렬되자 이튿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증산과 원유공식판매가격(osp)를 배럴당 6~8달러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유가 전쟁에 돌입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3) OPEC+ 갈등과 기간별 감산 합의(2020.01.01. ~ 현재)



- '비전 2030' 경제개혁 성공을 위해 감산을 통한 유가 회복이 절실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증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이하까지 급락하였고 결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항복을 받아내며 감산에 합의
- 제10차 OPEC+ 임시각료회의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 감산에 합의. 2019년 10월 생산량 기준으로 감산을 결정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예외적으로 일일 1,100만 배럴 기준으로 25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국가의 일일 생산량은 850만 배럴로 결정. 4월부터 생산량 늘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는 합의된 감산량 이외에 자발적인 일일 약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

3. OPEC+의 시기별 감산 협력 및 이행

3) OPEC+ 갈등과 기간별 감산 합의(2020.01.01. ~ 현재)



- 코로나19로 촉발된 원유 수요 축소량이 일일 3,000만 배럴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OPEC+의 감산 규모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함. 높은 원유 재고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섀도우로 인하여 4월 20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306% 폭락한 -37.63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가 등장. 하지만 미국과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감산이 본격화되고 5월 OPEC+의 감산이 예정되면서 국제유가가 4월 말 V자 반등하였으며 5월 들어 배럴당 30달러 이상을 회복
- 6월 6일 제179차 OPEC 정기총회와 제11차 OPEC+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일일 970만 배럴 감산 규모를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5~6월 생산 쿼터를 초과해 생산한 산유국의 경우 9월까지 미준수 물량을 보전에 추가 감산하기로 합의 →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대 초반까지 회복
- 7월 들어 석유 시장이 큰 폭의 유가 등락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OPEC+는 7월 15일 열린 장관급 화상회의에서 예정대로 8월부터 일일 970만 배럴에서 770만 배럴로 감산량을 줄이기로 합의

4. 석유시장 전망과 OPEC+의 미래

'세일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공급과잉이라는 석유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원유 수요가 유가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

원유 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 경제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

가을 이후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과 함께 팬데믹 장기화, 최대 석유 소비 시장인 중국에서의 홍수로 인한 소비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갈등 심화

4. 석유시장 전망과 OPEC+의 미래

- OPEC+의 통 큰 감산 협력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원하는 수준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이 산유량 치팅(cheating, 쿼터 규정을 어기면서 증산하는 것)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란 매우 힘들. 이미 몇몇 회원국들이 감산 이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규모의 감산 합의가 과연 2022년 4월 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
-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치팅을 본격화할 경우, 감산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 증대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1986년 유가 전쟁 때처럼 유가 폭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회원국간 산유량 치팅의 만연은 OPEC+는 물론이고 이미 그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한 OPEC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
- 설령 OPEC+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감산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더라도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량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유가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감사합니다.

“중동주요국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분석”

신상윤 (승실대)

중동 주요국의 에너지산업 경쟁력 분석



2020. 9. 12 한국중동학회 학술대회
승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신상윤



목차



1. 서론
2. 분석 모형: Porter's Diamond Model
3. 중동 주요국가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 분석 (Preliminary Analysis)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4. 주요 이슈와 전망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 UAE와 이스라엘 간 수교
5. 결론



서론



- 국제 정세와 에너지산업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파트너인 중동 주요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의 석유가스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Competitiveness)을 평가
- Michael Porter의 Diamond Model을 기반으로 국내 측면과 국제 측면을 모두 고려
- Preliminary Analysis를 기반으로 향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량적으로 경쟁력을 도출할 예정
- 추가적으로 주요 정세 변화 이슈에 대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전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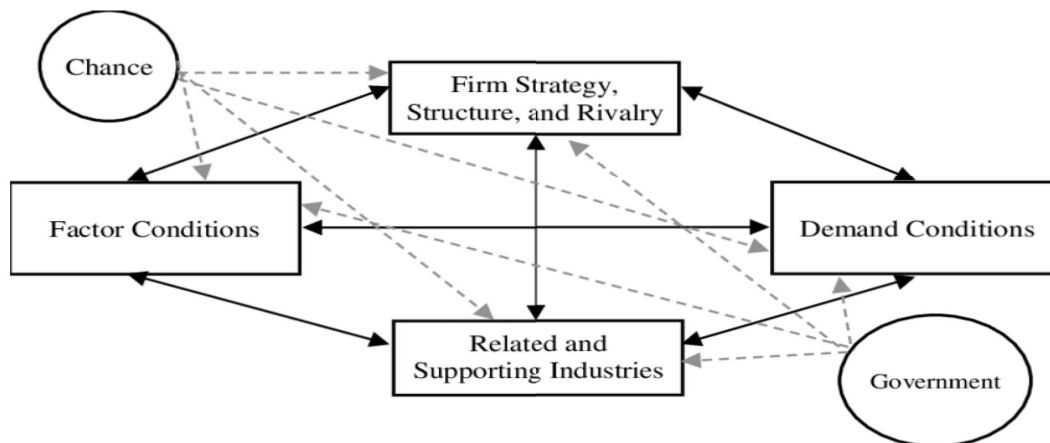
Diamond Model



- Diamond Model: 특정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대하여 국내 기반의 요인을 통하여 설명 (Porter, 1990)
 - 각 요소의 기여에 대한 명확한 상관관계는 제시하지 못함.
 - 예측보다는 결과론적 해석의 도구로서 주로 사용됨.
 - 국제경영의 측면과 그 영향에 대하여 간과
- Double Diamond: 역내 국가의 D를 함께 고려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평가 (Rugman and D'Cruz, 1991)
- Generalized D. Diamond: 특정 국가의 D와 글로벌 D를 통해 해당국의 산업경쟁력 평가 (Moon et al., 1998)



Diamond Model



Diamond Model



- 5개 내생 요인에 대하여 국내 요인 및 국제 요인을 함께 고려
- Fang et al., 2018; 윤종일 et al., 2013의 측정 변수 참조
- **Factor Condition:** 매장량, 기업매출, 기업순이익, 생산량, 여분의 생산용량, 국별 혁신역량,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액
- **Demand Condition:** 국내 석유가스수요, 수요 증가율, 수출액
-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술인프라, 금융시장 성숙도, 수송 능력, 국가경쟁력
- **Firm Strategy:** 수출 비중, 수출 다변화, 해외직접투자액, R&D 금액
- **Government:** 국가 재정(GDP)에서의 비중, 투명도지수



사우디아라비아



- Likert 척도로 사전적 평가 (1점: 아주 낮음 – 5점: 아주 높음)
- **Factor Condition:** 매장량 5, 기업매출 5, 기업순이익 3, 생산량 5, 여분의 생산용량 5, 국별 혁신역량 2,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액 2
- **Demand Condition:** 국내 수요 4, 글로벌 수요 증가율 2, 수출액 5
-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술인프라 3, 금융시장 성숙도 2, 수송 능력 5, 국가경쟁력 3
- **Firm Strategy:** 수출 비중 5, 수출 다변화 4, 해외직접투자액 5, R&D 5
- **Government:** 국가 재정(GDP)에서의 비중 5, 투명도지수 2
- **총점: 19.2/25점 (3.9+3.7+3.3+4.8+3.5)**



UAE



- **Factor Condition:** 매장량 4, 기업매출 4, 기업순이익 3, 생산량 4, 여분의 생산용량 4, 국별 혁신역량 3,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액 3
- **Demand Condition:** 국내 수요 3, 글로벌 수요 증가율 2, 수출액 4
-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술인프라 3, 금융시장 성숙도 4, 수송 능력 4, 국가경쟁력 4
- **Firm Strategy:** 수출 비중 5, 수출 다변화 4, 해외직접투자액 4, R&D 4
- **Government:** 국가 재정(GDP)에서의 비중 4, 투명도지수 3
- **총점: 18.2/25점 (3.6+3+3.8+4.3+3.5)**



카타르



- **Factor Condition:** 매장량 5, 기업매출 4, 기업순이익 4, 생산량 5, 여분의 생산용량 3, 국별 혁신역량 3,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액 3
- **Demand Condition:** 국내 수요 1, 글로벌 수요 증가율 5, 수출액 5
-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술인프라 3, 금융시장 성숙도 3, 수송 능력 5, 국가경쟁력 4
- **Firm Strategy:** 수출 비중 5, 수출 다변화 4, 해외직접투자액 5, R&D 4
- **Government:** 국가 재정(GDP)에서의 비중 5, 투명도지수 3
- **총점: 19.9점 (3.9+3.7+3.8+4.5+4)**



주요 이슈 및 전망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 중동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 피해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주 산업인 에너지 산업, 특히 석유가스 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침체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음.
 - 대체로 장기 계약을 통해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천연가스보다는 석유 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에너지 전환 속도 지연으로도 연결 가능
- **동지중해 가스전**
 -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역내 영향력이 강화되고, 전통적 에너지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의 경우 상대적 약화가 예상됨.
 - 이들 국가들의 경우, 유럽 시장보다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주요 이슈 및 전망



• UAE와 이스라엘 수교

- 양국 간 에너지 협력 역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GCC 국가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여기에는 반 이란 연대 구축이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GCC 국가들과 단교하고 이란 및 터키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카타르의 경우 역내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카타르의 LNG 수출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 구축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업 기회로 남아 있음.



결론



- 사전적인 분석 결과,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보다는 천연가스가 중심이 되는 카타르의 경쟁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석유가스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을 통해 에너지 전환 속도 지연도 가능
-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은 중동의 전통적 에너지 강국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며, 향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 확대로 이어질 것임.
-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간 수교는 카타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나,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유지할 것임.



결론



• 본 연구의 한계 및 보완 계획

- 향후 각 지표들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수행할 예정
- Diamond 모델 구성 요인 측정에 있어 포괄적이기보다는 대표적인 지표들을 선택하여 평균 수치를 활용
- Porter의 모델에서 국내 및 국제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기회요인(Chance)을 배제하고, 나머지 5개 요인이 동일하게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가정
- 석유가스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평가로 확대할 계획

Q&A

사회 · 문화분과

사회: 김수완 (한국외국어대)

“레바논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검열 코드와 사회적 금기”

발표: 안정국 (명지대)

토론: 김은지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15세기 이스탄불 쿨리에(külliye) 건설을 통한 도시 재건 관찰”

발표: 최선아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토론: 이수정 (한국외국어대)

“지중해 다인종 다문화 종교 문명의 근대성과 세속화”

발표: 김정하 (부산외국어대)

토론: 정진한 (단국대 GCC 국가연구소)

“레바논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검열 코드와 사회적 금기”

안정국 (명지대)

안정국*

Ahn, Jung-Kool

◁ 목 차 ▷

- I. 서론
- II. 레바논의 영상 콘텐츠 검열 현황
- III. 영상 콘텐츠 검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 IV. 결론

안정국: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I. 서론

레바논은 아랍문화권 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영화를 가장 많이 제작하고 있는 국가로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500편 이상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기준으로 48개의 상영관과 148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4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영화 산업에 있어 이란과 이집트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그러나 레바논에서는 다른 매체에 비해 영화에 대한 검열이 훨씬 까다롭고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레바논에서는 국가정보기관에 해당하는 공공안보국(공공안보국)이 영화 촬영, 상영, 수입, 배급 등 전 과정을 규제하는 검열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각종 권력 기관이나 종교 단체가 영화 및 예술 창작물 검열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검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보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 제19조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정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검열제이란 국가가 어떤 사상이나 정보가 허용 또는 금지되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편적 인권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면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문, 방송, 도서,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검열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동 지역의 국가는 국가통합, 전통윤리 보존, 정치적 안정 등을 이유로 검열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중동지역에서 언론의 자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레바논 또한 언론 및 출판에 대한 검열에서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검열의 정도가 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레바논 내에서의 상황만을 두고 보면 예전에 비해 미디어 매체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레바논에서는 당시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다빈치 코드’가 종교적인 이유로 판매 금지되며 관심을 끌었다. 레바논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던 이 책은 정보당국에 의해 모든 서점에서 회수된다. 이러한 결정은 레바논 인구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반발을 정보당국이 받아들이며 이루어졌다. 레바논 가톨릭 정보센터의 수장인 압두 아부 카스름(Abdou Abu Kasm)은 ‘다빈치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와 성관계를 갖고 자식을 둔다는 설정 등으로 기독교의 뿌리를 건드리고 있으며, “레바논은 여러 다른 종교 공동체가 있으며 다른 공동체를 공격하는 글들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바논 출판계는 이러한 결정이 검열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http://news.bbc.co.uk/2/hi/entertainment/3663344.stm>). 이 외에도 다양한 검열의 사례와 시민사회의 대응이 이어져오고 있다.

레바논은 다양한 정치 및 종교 그룹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자이크 사회이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 그룹 간의 첨예한 갈등은 레바논 내전(1975~1990)으로 비화되어 15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참혹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레바논에서는 내전에 대한 비판적 묘사를 담은 영화는 대사나 장면이 일부 삭제되거나 상영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0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어떤 일이 있나(Shu Sar?)>는 레바논 내전 기간 중 발생한 학살 사건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레바논 내전에 개입했던 주변 아랍 또는 이슬람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역시 레바논의 영화 검열제도에서 금기에 해당한다. 레바논 검열 당국은 특히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과 같은 국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장면 또는 대사에 대해 엄격히 규제를 가한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본 과제는 레바논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영화 검열

코드 및 제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과제는 레바논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양한 종파 간의 이해관계가 영화 검열 코드 및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레바논에서 영화 촬영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안보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군(軍) 당국, 보안 당국, 지방정부, 정당 등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외국 영화에 대한 수입 및 배급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내용을 담은 영화 및 예술 창작물의 경우에는 이슬람, 기독교, 드루즈 종파 등을 대표하는 종교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같이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레바논에서의 영화 제작과 상영은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결국 이중 또는 삼중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상콘텐츠분야에서도 존재하는 정파, 종파적 복잡성에 주목하여 영상콘텐츠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검열제도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연구자료의 수집을 위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방문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마치 레바논(March Lebanon), 사미르 카시르 재단(Samir Kassir Foundation)과 같은 검열제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II. 레바논의 영상 콘텐츠 검열 현황

레바논은 레바논 내전(1975~1990)과 1982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해 국가 전복의 위기를 맞으며 국가적 결속을 해치는 표현을 금기시하고 이에 대한 정치·종교적 검열을 강화해왔다.

레바논 헌법 제 13조는 의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

면서 사회질서 유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열 가능성을 법률상으로 남겨두었다. 또한 레바논 헌법 제19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 지도자는 개인의 지위, 종교 수행과 신앙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헌법위원회와 협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 내용을 담은 미디어에 대한 검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레바논에서 종교와 정치는 결코 분리된 관계가 아니다. 레바논은 각기 고유한 사회적·정치적 특징을 갖는 여러 종교 종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나뉘볼 수 있는 18개의 종파가 헌법에 의해 공인되고 있다. 지금도 각 종파들은 지역별로 주요 거주지역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종파는 자신들만의 가족법(개인지위법)과 관련한 종교법원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이 정치권력들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국가권력이 종파별로 안배되어 있다. 18개 종파가 각자의 종교적 권위를 정치적 권위, 사회적 권위로 행사하는 레바논의 사회구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이슬람 계열이 60% 가량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기독교 계열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구성을 살펴보면, 이슬람 계열에서 순니 27%, 시아 27%, 드루즈파 5.6%가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기독교 계열에서 마론파 21%, 그리스 정교 8%, 그리스 가톨릭 5%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과 기독교 양대 세력은 레바논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상충된 정치관으로 대립해 왔다. 기독교 세력은 레바논주의(Lebanism)를 주창하면서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레바논을 건설하려 하였고, 이슬람 세력은 아랍주의(Arabism)를 주창하면서 레바논을 아랍세계의 일부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두 세력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43년 국민협약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기에 이르렀다.

현대 레바논 정치에 있어 큰 획을 마련한 타이프 협정(Tai'f Agreement)은 16년간의 내전 종식을 공표한 협정으로 198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휴양도시인 타이프에서 협정이 이루어져 그 이름을 딴 것이다. 이 협정은 레바논을 재통합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신헌법을 제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

은 내전 전까지 기독교계에 편중되어 분배되던 권력을 그간의 인구변동을 감안해 재분배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내전 전까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대통령직을 기존과 같이 기독교 마론파가 차지하지만 그 권한을 대폭 줄이고, 순니 무슬림에 배정되었던 수상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의회의 의석을 기존의 99석에서 128석으로 늘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종파 간에 균등하게 5:5로 분배한다. 이러한 비율은 기존의 6:5의 비율에서 그간의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분은 각 하부종파 간 의회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셋째, 각 민병대는 해산하여 정부군에 편입하며, 무기는 정부에 반납한다. 넷째, 시리아의 레바논 내에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다섯째, 일반 공무원에 있어서 기존의 각 종파별에 할당되었던 수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민병대는 정당으로 재조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1990년에 제정된 새 헌법에 명문화 되었다.

종파 간 권력 안배의 원칙이 제도화되면서 가문을 중심으로 한 족벌 정치가 오늘날까지도 레바논 정치의 특징을 이루게 된다.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는 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계층이 가문을 배경으로 하여 지배 계층을 이루게 마련이지만, 특히 레바논의 경우 종파 내에서 이들 가문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사실상 이들 가문 중심으로 정치권력이 분배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른바 출세를 하려면 이들 가문에 대한 충성이 절대적인 요건인 까닭에 대외적으로는 종파내 성원 간의 단결이 강조되고, 대내적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현실적 지주가 되는 이들 지배가문에 대한 충성이 강조된다(한국이슬람학회 2018:313-316).

종파 간 균형이 무너지던 1958년 일어난 레바논 1차 내전은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되었지만, 1970년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대거 유입과 활동으로 다시금 힘의 균형이 깨져 2차 내전이 야기되었다. 1975년 시작된 2차 내전은 1989년 타이프 협정과 1991년 모든 정파와 종파 민병대원에 대한 무장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을 이유로 무장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무려 16년 동안 계속된 레바논 내전은 여러 참혹한 사건을 만들어냈다. 1982년 베이루트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 사브라, 샤퉴라에서 벌어진 기독교

민병대의 난민 학살사건(약 3,500명 사망)과 1983년 10월 헤즈볼라에 의해 자행된 주 레바논 미 해병대본부 폭파사건(241명의 미 해병·해군 등 사망)이 대표적일 것이다.

레바논 내전을 단순한 종교종파 갈등으로 보는 것은 오해에 가깝다. 종교의 독단주의 혹은 특수주의가 종교간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종교간 갈등은 종교 간의 힘과 재산의 격차, 계급적 격차와 갈등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레바논은 이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강력한 활화산에 너무나 인접해 있는 관계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식민시대 서구에 의해 주어진 불안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공존과 조화의 다원적 사회를 지향하며 번영을 실현해 가던 레바논은 국제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잃고 모자이크적 사회로 분열, 처참한 내전을 겪게 되는 것이다(한국이슬람학회 2018:326-327).

<표1>레바논의 18개 공인 종파 및 인구분포(인구 약 430만 명, 난민 제외)

이슬람 종파 (약 59.5%)	순니(Sunni)		27%
	시아(Shia)		27%
	유사 이슬람	드루즈(Druze)	5.6%
	시아 계열	이스마일리(Isma'ili)	1%
		알라위(Alawite)	미만
기독교 종파 (약 40.5%)	마론 가톨릭(Maronite Catholic)		21%
	그리스 정교(Greek Orthodox)		8%
	그리스 가톨릭(Melkite Greek Catholic)		5%
	개신교(Protestant)		1%
	시리아 가톨릭(Syriac Catholic)		6%
	갈데아 가톨릭(Chaldean Catholic)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		
	아르메니아 가톨릭(Armenian Catholic)		
	아르메니아 정교(Armenian Orthodox)		
	아시리아 동방교회 (Assyrian Church of the East)		

	시리아 정교(Syriac Orthodox)	
	콥트(Copts)	
기타	유대교(Jewish)	극소수

이렇듯 종교종파가 권력을 분점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시민사회의 바람과는 다르게 레바논의 언론 및 출판 등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점차 강화되어 오고 있다. 1940년대에 대부분의 검열 사례는 성적인 내용이나 종교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 1960년대 검열에서는 적성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검열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1975년부터 1990년에 걸쳐 벌어진 16년간의 내전 기간 동안, 레바논에서는 종교, 내전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이스라엘,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검열뿐만 아니라 음악 작품들에 대한 검열까지도 이루어졌다. 1975년 내전 발발 이후 특히 검열이 강화되어 표현의 자유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검열 관행은 명확한 법적 정당성 없이 체계화되었다.

그 후 신문, 잡지, 서적,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사후적으로 검열되는 동안, 영화관과 극장은 사전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시나리오나 희곡과 같은 스크립트는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검열은 예술과 문화와는 무관한 핵심 정부기관인 레바논 공공보안국(لإدارة العامة للأمن العام)에 의해 직접 집행되어 왔다. 영화나 연극의 경우 공공보안국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검열 대상이기 때문에 기소에 대한 항소권과 변호권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신문 등 출판물의 경우는 예술계에 비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https://www.ietm.org/en/themes/history-of-censorship-in-lebanon>).

2011년 메트로폴리스 DC(Metropolis DC), 아쉬칼 알완(Ashkal Alwan), 네아베이루트(Né à Beyrouth) 등 레바논 주요 문화 단체들은 마르사드 알라카바(Marsad al-Raqaba, 검열관측소)를 구성하여 국가 기관이 실시하는 검열 내용들을 공개했고, 그 결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언론, 출판, 미디어 검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바논은 순니 이슬람, 시아 이슬람, 마론파, 드루즈 등 18개에 달하는 종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파 및 정파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그 결과 언론, 출판 등에 대한 검열이 정부 차원과 종파 및 정파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진행되어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카네기 국제평화 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레바논 공공보안국이 정치적 검열을 주도하는데 반해, 순니파 종교 기구인 다르 알파트와(Dar al-Fatwa)나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톨릭 정보센터가 종교적 검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아비 라시드(2009)의 영화 'Help'의 경우, 상영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었으나 공공안보국이 가톨릭교회가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제출하자 상영허가를 취소한 바도 있다.

물론 종교적인 차원에서 레바논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공공보안국에 귀속되지만, 안보국은 가톨릭 교회, 시아 이슬람 최고회의, 다르 알 파트와 같은 종교 당국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비록 법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종교 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레바논 주민에 적합한지, 그리고 또는 어떤 것들이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https://www.freethoughtlebanon.net/2017/10/banned-books-in-lebanon/>).

레바논의 상영금지 영화 목록을 통해 출판물에 대한 검열의 특징과 유형을 일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3> 주요 레바논 상영금지 영화 목록

순번	제목	감독	금지 사유	금지 연도
1	Schindler's List	Steven Spielberg	경제부 블랙리스트/이스라엘 보이콧	1993
2	The Post			2017
3	Wonder Woman	Patty Jenkins	이스라엘 보이콧(주연배우가 이스라엘인)	2017
4	Justice League	Zack Snyder		2017

5	The Attack	Ziad Doueiri(레바논)	이스라엘 로케이션	2013
6	Personal Affairs	Maha Haj(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제작사 및 로케이션	2015
7	Jungle	Greg McLean	이스라엘 보이콧	2017
8	The Da Vinci Code	Ron Howard	신성모독	2014
9	Persepolis	Marjane Satrapi	이란과 이슬람에 대한 공격	2000
10	Waltz with Bashir	Ari Folman	레바논 내전 비판	2004
11	Spotlight	Thomas McCarthy	종교적 논란(가톨릭)	2015
12	Ben-Hur	William Wyler	이스라엘 보이콧(주연 배우가 이스라엘인)	1959

스필버그가 연출했거나 제작한 영화가 모두 상영금지된 것은 아니다. ‘Bridge of Spies’, ‘Transformers’ 등 최소한 5편의 관련 영화가 검열을 통과해 상영되었다.

또한 ‘여성관 원들리 리스트’로 알려진 제시카 차스테인 주연의 ‘The Zookeeper’s Wife’도 웬일인지 상영이 허가되기도 했다.

공공안보국은 영화에 대해 "사용 면허(exploitation license)"를 발급하며 또한 유대교, 이스라엘, 성적인 내용 또는 종교에 대한 언급과 관련된 장면이 포함된 경우 영화의 특정 장면을 삭제하거나 상영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90년대 초부터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12세** 미만 아동은 낮은 수준의 폭력 장면이 담긴 영화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영화 관람이 제한되고, **15세** 미만은 부분적 나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담긴 영화 관람이 제한되며, 포르노그래피적인 영화는 18세 미만의 관객에게 금지된다.¹⁾ 하지만 나체 장면이나 성적인 내용이 가혹하게 검열되는 편은 아니다.²⁾

1999년, 공공안보국은 레바논의 란다 샤할 삽바그 감독의 영화 <Civilisées> 중 거의 3분의 1을 잘라냈는데, 이 영화는 레바논 내전 중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역사를 다룬 영화다. 안보총장은 편지에서 특정 장면이 종교적 신념을 공격하고 종교적 편협성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초에도 사미르 하브시가 제작한 레바논 내전을 다룬 영화 <Le Tourbillon> 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DVD로 출시된 영화들에 대한 감시도 이어졌다. 2002년 1월 초, 공공안보국은 베이루트의 버진 메가스토어를 급습했다. 이들은 "종교적 정서, 관습,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규정을 어겼다"는 명분으로 DVD와 CD를 압수했다. 압류된 영화 중에는 '마이 페어 레이디', '벤허', '나사렛의 예수' 등이 있었다. 이 영화들은 레바논 TV 채널에서 때때로 상영되던 것들 이었다. 영화들을 압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 보이콧 사무국에서 친시오니즘 인사로 분류한 배우, 감독, 제작자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스탠리 큐브릭, 폴 뉴먼,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리 루이스, 에드워드 로빈슨(벤허 제작자), 메리쉬 코퍼레이션(Merrish Corporation, MGM과 함께 영화를 만들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둘째, 이스라엘의 유대인 공동체, 헤즈볼라, 기독교 또는 무슬림의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가톨릭 신부와 유대교 랍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드워드 노튼의 '키핑 더 페이스', 버트 레이놀즈가 한 장면에서 유대인 야물커³⁾를 입고 나오는 데미 무어의 '스트립티즈', 헤즈볼라의 셰이크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는 알 파치노의 '인사이드' 등이 있다. 셋째, 틸

1) 레바논 형법 제753조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극장 및 영화관의 관리자 또는 그러한 영화관을 고용한 자가, 아버지, 어머니, 법적 보호자 또는 성숙한 나이의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이 동반하지 않은 남녀 어린이나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안녕이나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연극이나 영화를 공연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과 4만 LL(27달러)~40만 LL(267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밖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습범행의 경우 3일에서 3개월까지 행사장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2) 국내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러브 액츄얼리(2003, 감독 리처드 커티스)의 경우 국내 상영 당시 포르노 배우 에피소드가 삭제되었으나 레바논에서는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상영되었다. 국내에서 2019년 재개봉 될 때에는 이 에피소드가 삽입되었다.

3)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 정수리 부분에 쓰는, 작고 둥글납작한 모자

토 브라스의 영화들을 비롯해 Sense Empires, Bu Nagisa Ochima와 같은 에로틱 영화들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모두 합해 300편의 영화가 압수되었고, 1000여 편의 DVD가 압수되었다. 공공안보국은 압수된 DVD 한 장당 5만 레바논 파운드(USD 33)를 부과했다. 그 밖에 성전환 십대 소녀의 삶을 다룬 힐러리 스웱크의 ‘소년은 울지 않는다’,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원들러 리스트’,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브루스 윌리스의 ‘비상계엄’ 등이 유통 금지 되었다.(NDH, 2003 Lebanon, Report on Censorship in Lebanon)

다음의 <표4>를 통해서도 영화 유통 금지의 사유를 살펴볼 수 있다.

<표4> 위키 리크스에서 발표한 금지 영화 목록(2008)

TITLE / MOVIE	REASON
29 PALMS	SEXUAL CONTENTS
3rd ROCK FROM THE SUN S2 & S3	N/A
A HOLE IN MY HEART	N/A
A MA SOEUR!	SEXUAL CONTENTS
A VOICE FROM HEAVEN-NUSRAT FATEH ALI KHAN	CONTAINS DANCES OVER SANG CORAN VERSES
ADVENTURES OF PRISCILLA QUEEN OD THE DESERT	HOMOSEXUALITY
ANGELS & DEMONS REVEALED	N/A
ANYTHING ELSE (WOODY ALLEN)	PUBLICITY FOR ISRAEL
ARCHITECTURE OF DOOM	SYMPATHY FOR JEWS
BAND OF BROTHERS EP. 9-10	SYMPATHY FOR JEWS
BARBARELLA QUEEN OF THE GALAXY	JANE FONDA
BARFLY	PRODUCED BY A BLACKLISTED COMPANY (CANON)
BATTLE OF ALGIERS	N/A
BETTY BLUE	OBSCENE CONTENTS
BIKINI BASH	EROTIC
BOBBY	Harry Belafonte
BULLET	PUBLICITY FOR ISRAEL (DAVID'S STAR+ISRAELI FLAG)
CENTER OF THE WORLD	N/A
CIRCLE OF DECEIT AKA LE FAUSSAIRE	N/A
CLOCKWORK ORANGE	MIRIAM KARLIN
DANIEL DERONDA	SHOT IN ISRAEL+SYMPATHY FOR JEWS
DECRYPTAGE	N/A
DÉJÀ VU	SHOT IN ISRAEL
DELTA OF VENUS	N/A
DON'T TRY THIS AT HOME: THE STEVE-O VOL 1	OBSCENE CONTENTS
DON'T TRY THIS AT HOME: THE STEVE-O VOL 2	OBSCENE CONTENTS
FRENCH TWIST	SEXUAL CONTENTS
GOZU	N/A
GREAT ESCAPE	PRODUCED BY A BLACKLISTED COMPANY (MIRISH)
HEAT AND DUST	N/A
HEAVEN'S BURNING	OFFENSIVE TO ARABS AND ISLAM
HISTORY OF THE WORLD PART 1	PUBLICITY FOR ISRAEL
IN THE HEAT OF THE NIGHT	THE MIRISH CORPORATION
INDEPENDENCE DAY	OFFENSIVE TO ARABS
IRREVERSIBLE	OBSCENE CONTENTS
JACKASS	OBSCENE CONTENTS
JEZEBELLE AND FRIENDS	PORNOGRAPHIC
JULIUS CAESAR	REPUBLIC PICTURES
K STREET EP. 1 TO 10	HURTFUL TOWARDS SAUDI ARABIANS+ PUBLICITY FOR ISRAEL AND SUPPORT FOR TERRORISM
KAROL A MAN WHO BECAME POPE	INCLUDES SCENES & CONTENTS SYMPATHISING WITH JEWS
KEN PARK	SEXUAL CONTENTS
KINSEY 2004	N/A
LA FEMME NIKITA S1	CONTAINS HEBREW WRITINGS+ISRAELI SOLDIERS
LA FOLIE DES GRANDEURS	N/A
LA PIANISTE	SEXUAL CONTENTS
LA REPETITION	HOMOSEXUALITY
LAST METRO	N/A

LE DICTATEUR	PUBLICITY FOR ISRAEL
LIFE OF BRIAN	SEXUAL CONTENTS/ IT SHOWS DAVID'S STAR/ TOO MUCH JEWISH INNUENDOS AND POSSIBLY SHOT IN ISRAEL.
LIFE OF JESUS: THE REVOLUTIONARY V. 1&2	OFFENSIVE TO CHRISTIANITY
LOST TOMB OF JESUS	CONTRADICTS CHRISTIAN BELIEFS BY CLAIMING THAT JESUS DID NOT RESURRECT / WAS MARRIED TO MARY MAGDALEN AND HAD A SON
MAD MEN S1	Ep. Babylon: Publicity for Israel
MAITRESSE	SEXUAL CONTENTS
MANCHURIAN CANDIDATE (1962)	LAURENCE HARVEY
MANHATTAN (WOODY ALLEN)	N/A
MEIN KAMPF	SYMPATHY FOR JEWS
MIGHTY APHRODITE (WOODY ALLEN)	N/A
MON TRESOR	N/A
MOSES	AHARON IPALE
MY SUMMER OF LOVE	HOMOSEXUALITY
MYSTERIES OF THE BIBLE	PUBLICITY FOR ISRAEL
NANNY (TV SERIES)	JEW CONTENT
OMEN	VIOLENT CONTENT/SATANIC SYMBOLS/SCENE SHOT IN ISRAEL+ HEBREW WRITINGS+BLACKLISTED ACTOR: YAKOV BANAI
OMEN 2	SAME REASONS AS ABOVE
OMEN 3	SAME REASONS AS ABOVE
ORDER	OFFENSIVE TO CHRISTIANITY
PIANIST	SYMPATHY FOR JEWS
POLA X	SEXUAL CONTENTS
PRET-A-PORTE	N/A
REAL CANCUN	SEXUAL CONTENTS
RULES OF ENGAGEMENT	OFFENSIVE TO ARABS AND ISLAM (CLEARED IN THE SAMUEL JACKSON PACK)
SANTA BABY	MISHA SEGAL
SCARLET DIVA	N/A
SCHINDLER'S LIST	SYMPATHY FOR JEWS
SECRETS OF THE KAMA SUTRA VOL. 1	SEXUAL CONTENTS
SECRETS OF THE KAMA SUTRA VOL. 2	SEXUAL CONTENTS
SHE HATE ME	SEXUAL CONTENTS
SHELTERING SKY	OFFENSIVE TO ARABS
SHOOT HORSES DONT THEY?	JANE FONDA
SHOW ME LOVE	HOMOSEXUALITY
SHOWGIRLS	N/A
SIEGE	PUBLICITY FOR ISRAEL
SIX FEET UNDER S1	HOMOSEXUAL CONTENTS
SIX FEET UNDER S2	HOMOSEXUAL CONTENTS
SOMETHING GOT TO GIVE	PHIL SILVERS
SOPHIE'S CHOICE	SYMPATHY FOR ISRAELIS
SOPRANOS S1 DISC 2	SYMPATHY FOR JEWS
SPIRITS OF THE DEAD	JANE FONDA
STORM CLOUD	SYMPATHY FOR JEWS
SURE THING	VIVECA LINDFORS

TANGO LESSON	N/A
TORN CURTAIN	PAUL NEWMAN
TOUTE UNE VIE	SYMPATHY FOR JEWS
TRUE LIES	PICTURING ARABS AS TERRORISTS
TURQUISH DELIGHT	N/A
VAS VIS ET REVIENS	N/A
VISITOR Q	N/A
WAY WE WERE	VIVECA LINDFORS
WEST WING S1	OFFENSIVE TO ARABS
WEST WING S3	OFFENSIVE TO ARABS
WINGS OF DESIRE	N/A
YOU DON'T MESS WITH THE ZOHAN	JEW CONTENT
ZELIG	N/A

*출처: https://wikileaks.org/wiki/Partial_list_of_films_banned_in_Lebanon,_2008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 리스트는 레바논의 DVD 판매점에 발송된 것이다.)

III. 영상 콘텐츠 검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영상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검열에 대한 레바논 시민사회의 저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재 레바논 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는 마치 레바논(March Lebanon)과 사미르 카시르 재단(Samir Kassir Foundation)을 들 수 있다. 마치 레바논은 독립 비영리 재단으로 언론 및 영상 매체 등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미르 카시르 재단은 레바논의 대표적인 언론 검열 반대 활동 단체이다.

마치 레바논에서는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직을 맡고 있는 레아 바루디(Lea Baroudi, 여)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사미르 카시르 재단에서는 아이만 므한나(Ayman Mhanna, 남)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1년 레바논 제2의 도시 트리폴리에서 첫발을 내딛은 마치 레바논은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극 공연을 기획하고 ‘문화 카페’를 설립하는 등 기존의 운동방식과는 또 다른 참신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 단체는 세 가지 본질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젊은이들에게 교육, 동기 부여,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변화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로, MARCH는 이질적인 레바논 사회 구조 내에서 진정한 존경과 인정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즉, 종파간 격차를 효과적으로 개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레바논 내전이 거의 30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의 상흔은 레바논의 토대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힘써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평등이 포용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주로 주레바논 영국대사관, 네덜란드대사관, 캐나다대사관 등 외국 대사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마치 레바논은 활발한 오프라인 활동 외에도 두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⁴⁾, 그 중 한 웹사이트는 가상 검열 박물관(The Virtual Museum of Censorship)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미르 카시르 재단은 레바논 최대 신문사인 알나하르의 기자였으며 2005년 베이루트에서 차량에 설치된 폭탄에 의해 암살된 사미르 카시르의 사명을 잇고자 만들어진 단체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카시르의 비극적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친구들은 2006년 베이루트에 공식적으로 사미르 카시르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로, 레바논과 아랍 세계의 시민사회와 문화계 내에 민주주의 문화를 전파하고 자유언론을 수호함으로써 문화적·민주적·세속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미르 카시르 재단은 자신의 임무가 세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다고 말한다. 첫째, 사미르 카시르의 문학·학술·저널리즘 유산을 보존·번역·보존한다. 둘째, 컨퍼런스, 전문 세미나, 연례 예술제 등을 통해 문화적 자유와 자유로운 사상을 촉진한다. 셋째,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를 상대로 자행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기록하며, 젊은 언론인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

사미르 카시르 재단은 사미르 카시르 아이스 미디어 및 문화 자유 센터(Samir Kassir Eyes Center for Media and Cultural Freedom, 약칭 Skeyes)를 중심으로 언론 검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재단 또한 두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⁵⁾

4) <https://www.marchlebanon.org/>과 <http://censorshiplebanon.org/> 후자가 가상 검열 박물관이기도 하다.

사미르 카시르처럼 레바논에는 살해된 언론인이 여러 명 존재하고 있다. 1992년 이래 레바논에서 살해된 언론인의 수는 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IV. 결론

본 연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레바논의 검열제도에 대한 탐구를 통해 레바논의 사회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하는 데에 있다.

레바논의 검열제도와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검열에 관한 연구를 국내에서 찾아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의 전망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서울: 소명출판, 2011.
- 레베카 쿠느스 저, 강창래 역. *20세기 이데올로기, 책을 학살하다*. 파주: 알마, 2012.
- 설진아. “이집트 민주화 혁명에서 SNS와 소셜 저널리즘-페이스북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58호, 2012
- 정근식, 한기형 외.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서울: 푸른역사, 2016.
- 한국이슬람학회. *세계의 이슬람*. 파주: 청아출판사, 2018.
- Doreen, Khoury. “Cut it out: Censorship in Leban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2

5) <http://samirkassirfoundation.org/en/Home-Page>와 <http://www.skeyesmedia.org/en/home>

6) 1992년 2명, 1993년 1명, 1999년 1명, 2005년 2명, 2006년 1명, 2010년 1명, 2012년 1명 등

Houri, Omar. "Rule of Law Quick Scan Lebanon: Prospects and Challenges", *HiiL Rule of Law Quick Scan Series*, 2012

NDH Lebanon, *Report on Censorship in Lebanon* (March 2003)

Saghieh, Nizar, et al. *Censorship in Lebanon: Law and Practice*, Doreen Khoury(Ed). Beirut, The Censorship Observatory. 2010

Abou-Zeid, Samar. "A Report from Lebanon on Publishing in the Arab World",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New York* 2013

Sciacchitano, Francesco. *Assessment of Media Legislation in Lebanon*, MEDMEDIA. 2015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8-table-country-scores>

<https://www.ietm.org/en/themes/history-of-censorship-in-lebanon>

<https://www.ietm.org/en/satellite-beirut-2016/international-campaign-for-freedom-of-expression>

<https://www.economist.com/prospero/2018/04/23/the-politics-of-cultural-censorship-in-lebanon>

https://www.marchlebanon.org/media/document/MARCH_Report1P_censorshipA4.pdf

<http://censorshiplebanon.org/>

<https://thearabweekly.com/ban-it-bin-it-close-it-lebanon-and-growing-climate-censorship>

<https://alefliban.org/wp-content/uploads/2018/02/NDH-Report-Censorship.pdf>

<http://news.bbc.co.uk/2/hi/entertainment/3663344.stm>

“15세기 이스탄불 쿨리에(külliye) 건설을 통한 도시 재건 관찰”

최선아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1. 들어가면서

쿨리에(külliye)는 일반적으로 모스크를 중심으로 마드라사, 상업용의 건물, 영묘 등과 함께 구성된 복합 건물을 의미하는 터키어이다. 어원은 아랍어 쿨리에(كلية)에서 왔다고 전해지며 영어로는 보통 complex라고 번역된다. 터키에서는 쿨리에 이외에도 만주메(manzume) 헤예트(hey'et), 이마렛(imâret), 시테(site), 이마렛 시테시(imâret sitesi)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술탄이나 술탄의 가족들, 고위급 정부 관리들이 기부하여 건설한다. 이슬람권에서는 우미야드 왕조시대부터 계속해서 건설되어왔고 튀르크인들 역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리바트(ribat)라는 유사한 용도의 복합 건물을 건설했다. 아나톨리아 반도에 튀르크가 정착한 후 알투루(Artuklular) 시대부터 오스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건설한 건축물이지만 쿨리에가 특히 다수 건설되고 발전한 것은 오스만 시대였다.¹⁾

오스만 제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 쿨리에는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오스만 시대의 도시와 마을을 쿨리예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익히 지적되어왔던 바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스크와 영묘같이 종교적 기능의 건물을 비롯하여 마드라사만이 아닌 쿠란 학교나 초급교육 기관 같은 건물은 교육 기능을 해왔으며, 병원, 빈자와 학생을 위한 무료 급식소, 수도승을 위한 숙소와 같은 공공 서비스 역할을 하는 건물과 상점과 목욕탕과 같이 수익 창출 목적의 시설 등이 함께 모여있는 쿨리에의 존재는 도시민에게 있어 종교적 신심 고양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오스만 제국에서 쿨리에 발전의 정점은 16세기로 보고 있다. 즉, 오스만 제국의 국가 발전과 함께 쿨리에 건설 역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다양한 용도의 건물로 구성된 쿨리에 건설에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국가가 발전하여 부유한 시기에 쿨리에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미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팽창되는 시기와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 정복 직후 전후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시 개발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쿨리에 건설 단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발표에서는 쿨리에 건설은 어떤 단계를 거쳐 건설할 수 있었는지와 도시 재건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Ahmet Vefa Çobanoğlu, "külliye", İslam Ansiklopedisi cilt 26, İstanbul: TDV, pp.542-544.

2. 도시 재건의 단계

오스만 제국의 이전 수도였던 부르사(Bursa)와 에디르네(Edirne)에서도 셀주크 시대와 마찬가지로 켈리에 건설이 지속하였다. 1326년 부르사를 정복했던 오르한 가지(Orhan Gazi)는 부르사를 수도로 삼고 건설 활동을 지원했다. 처음에는 궁전을 건설하고 성내의 수도원을 모스크로 바꾸었다. 1338년~1340년 성의 동쪽에 건설한 오르한 모스크를 이마렛, 마드라사, 목욕탕과 카라반사라이로 구성된 켈리에로 발전시켰다. 이 오르한 켈리에시(Orhan külliyesi)는 도시의 중심지가 되었다.²⁾ 에디르네 역시 유사한 상황이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콘스탄티노플'은 도시의 기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였다. 1204년 제4차 십자군대의 공격을 받은 후 도시는 실질적으로 복구되지 않았다. 콘스탄티노플의 몰락은 인구의 축소로 확인할 수 있다. 인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적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800년에서 1050년 사이에 약 350,000~500,000 명사이었던 인구는 1200년에는 200,000 명, 1300년대에는 150,000명~75,000명으로 점차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 전후에는 40,000~50,000명에 불과했다고 추정하고 있다.³⁾

오스만 제국 군대는 콘스탄티노플 정복 직후 전통에 따라 사흘간 도시를 약탈했고, 술탄 메흐메트 2세는 곧바로 도시 복구를 시작하게 된다. 이 재건 명령은 도시를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 완벽한 형태로 도시를 만들라고 명령이었다.

도시 재건의 첫 번째 단계는 켈리에 건설은 아니었다. 우선 도시의 인구 증진을 꾀했다. 당시 오스만 제국군의 군대를 피해 대피한 유민을 다시 이스탄불로 복귀시키고 오스만 제국이 정복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스탄불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명령을 내린다.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에디르네로 떠난 사이 이 명령으로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4천 가구, 루멜리(발칸반도) 지역에서 4천 가구가 이스탄불로 이주하고 빈집을 무료로 할양받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인구를 불러들인다. 다른 지역의 빈자뿐만 아니라 부자, 예술가, 장인, 상인을 데려온다. 인구 정착을 위하여 이스탄불의 치안감독관(subaşı)과 시법관(Kadi)을 임명하였다. 또한, 기독교 인구 역시 이스탄불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스탄불 총대주교를 임명한다.⁴⁾

1455년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세르비아 원정에서 복귀하였을 때는 성벽(수리)와 궁전 및 요새(Yedikule)가 완성된 것에 만족한다. 이후 다리 건설과 도로 정비를 명령한다. 이다음 단계로 내린 명령은 시장과 베데스텐⁵⁾ 같은 상업지구 건설이었다.⁶⁾ 오늘날 서구인들에 의해 그랜드 바자르라고 부르는 뷔윅

2) Halil İnalçık, "Bursa", İslam Ansiklopedisi cilt 6, İstanbul: TDV, 1992, pp. 445~449.

3) Tertius Chandler; Gerald Fox, 3000 years of urban Growth. New York, New York ; London, England : Academic Press, 1974, p. 175.

4) Halil İnalçık, "Fâtih Sultan Mehmed Tarafından İstanbul'un Yeniden İnşası"(Çev. Fahri Unan), Ondokuzmayıs Üniversitesi Eğitim Fakültesi Dergisi, 3 (Samsun, Aralık 1988), pp. 215~225.

5) 시장(çarşı)은 길을 끼고 양옆에 상점이 늘어선 곳을 의미하고 아라스타(arasta)는 워크프가 건설한 모스크 인근의 시장을 의미하여, 대상 숙소는 시외에서 상품을 가져오는 상인들의 숙소 기능이 주요하다. 베데스텐은 에스나프(esnaf: 길드)와 장인들의 물건을 파는 기능을 주로 하였으며, 상인의 주요 문서와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였다 일반적으로 베데스텐을 중심으로 상업지구가 확산된다. Enver Behnan Şapolyo, "Bedestenler", Önyasa, III/32, Ankara, 1968, pp. 12~13; Semavi Eyice,

베데스텐(Büyük Bedesten)이 이때 기초를 다듬는다. 1464년 즈음하여 완공된 베데스텐에는 128개의 가게가 들어섰고, 베데스텐 주변에는 894개의 가게가 들어섰다. 같은 해 베데스텐 내에는 몇 개의 목욕탕이 건설되는데, 이를 위해서 주변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된다.⁷⁾

3. 이스탄불 초기 쿨리에

1459년, 도시의 기반 시설이 일부 안정화가 된 이후에야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처음으로 쿨리에 건설을 명령한다. 최초로 쿨리에 건설을 명령한 에융(Eyüp)은⁸⁾ 성 바깥의 작은 마을이었다. 동로마 시대에는 작은 교회와 수도원 정도만 있었던 외곽 지구였다. 그러나 이곳은 오히려 무슬림들에게 의미 깊은 곳이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시대의 조력자였던 아부 아융 알 안사리(Abu Ayyub al-Ansari)가 동로마 군대와 전쟁 중 이곳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⁹⁾ 즉, 이곳에 쿨리에 건설을 명령한 것은 이스탄불 도시 재건을 목적으로 했다고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의미로 명령했다고 봐야 한다.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에융 쿨리에 건설을 명령함과 동시에 당시 고위급 관료들에게 쿨리에 건설을 명령했다. 쿨리에 건설은 당시 재상이었던 마흐무드 파샤(Mahmud paşa)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자본은 관리들의 개인적인 회사도 있었지만, 주로 워크프의 힘을 빌렸다.¹⁰⁾

이 시기에 이스탄불에 건설된 쿨리에는 파티흐 쿨리에시(Fâtih külliyesi, 1463-1470년), 마흐무드 파샤 쿨리에시(Mahmud Paşa külliyesi, 1463-1473년), 무라드 파샤 쿨리에시(Murad Paşa külliyesi, 1471-1477년), 셰이흐 베파 쿨리에시(Şeyh Vefâ külliyesi, 1476년), 다부드 파샤 쿨리에시(Dâvud Paşa külliyesi, 1485년), 챔베르리타쉬 아티크 알리 파샤 쿨리에시(Çemberlitaş Atik Ali Paşa külliyesi, 1496년) 등이 있다.¹¹⁾ [지도 1]

"BEDESTEN", TDV İslâm Ansiklopedisi 5. cilt, İstanbul: TDV, 1992, pp. 302~311

6) Halil İnalçık, ibid, p. 215~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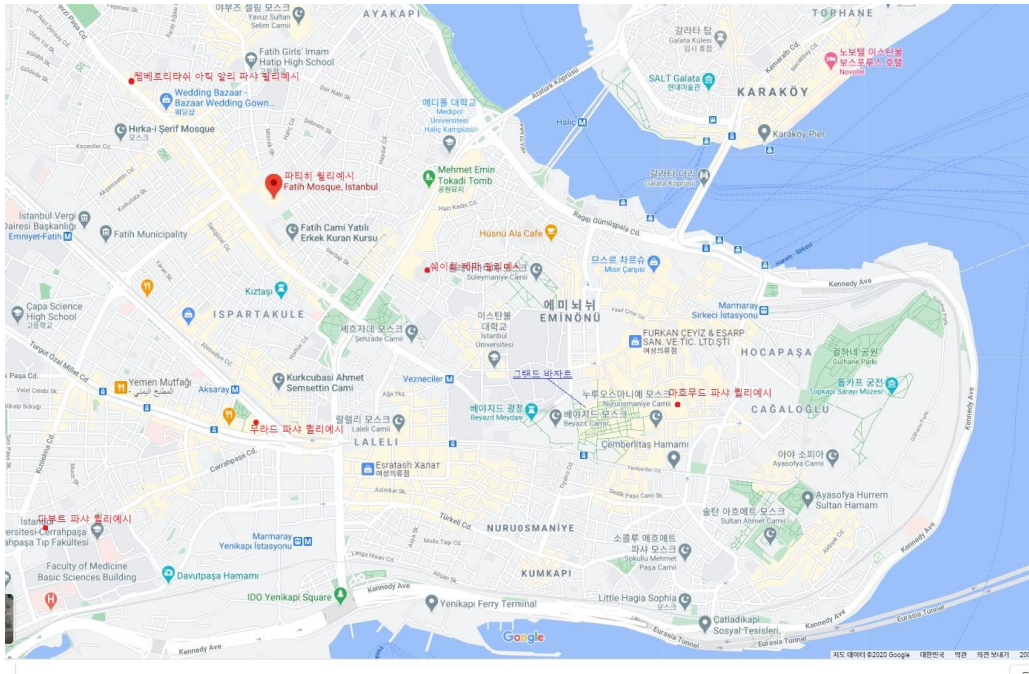
7) Halil İnalçık, ibid, p. 215~225.

8) 엄밀하게 따지면 에융은 당시 이스탄불은 아니었다. 에융이 이스탄불로 편입되는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Tülay Artan, "Eyüp", İslam Ansiklopedisi Cilt 12, 1995, pp. 1-6.

9) Sevil Derin, "Tarihî Süreçte Eyüp Sultan Camisi", Sanat Tarihi Dergisi, Cilt: XXV, Sayı: 2 Ekim 2016, pp. 177~191.

10) Halil İnalçık, ibid, p. 215~225.

11) Oktay Aslanapa,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âp, 1986, pp. 92~128.



[지도 1-이stanbul 초기 켈리에 위치]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이스탄불 초기 켈리에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건설되었다. 이것은 공공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켈리에가 한곳에 치우치지 않고 일정 인구에 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음을 시사한다. 부르사와 에디르네에서 켈리에를 건설했던 오스만 인들에게 켈리에의 사회 공공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인구의 수요를 맞출 수 있었는지 예상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당시 켈리에의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건물의 종류가 다르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즉, 도심에 위치한 켈리에의 경우 모스크, 마드라사, 무료 급식소와 같이 공공 서비스 역할을 하는 건물과 가게, 대상 숙소, 목욕탕과 같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건물이 결합 된다. 주거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스크, 마드라사, 무료 급식소, 병원, 급수대 등을 중심으로 건설된다.¹²⁾ 이스탄불 정복 초창기 켈리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마흐무드 파샤 켈리에에는 모스크, 영묘, 목욕탕, 대상 숙소, 마드라사, 무료 급식소, 초급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¹³⁾ 무라드 파샤 켈리에 건설 초창기에는 모스크, 무료 급식소, 목욕탕, 마드라사로 구성되어있었다.¹⁴⁾ 셰이흐 베파 켈리에에는 모스크, 마드라사, 식당, 목욕탕, 무료 급식소, 도서관, 영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¹⁵⁾ 챔베르리타쉬 아티크 알리 파샤 켈리에에는 모스크, 마드라사, 대상 숙소, 무료 급식소와 가게로 구성되어있었다.¹⁶⁾ 파티흐 켈리에에는 모스크, 영묘, 마드라사, 무료 급식소,

12) Zekiye Yenen, "Osmanlı Dönemi Türk Kentinde Planlama Kültürü", III. Eyyüpsultan Sempozyumu, İstanbul, 1999, s. 438-445.; Serkan Sınmaz, "The Urbanization Symbol of Ottoman Civilization and Social Life Centers: Kulliyes (Islamic-Ottoman Social Complexes) and Spatial Features", Turkey at the Beginning of 21 st Century: Past and Present (ed.Recep EFE; Metin AYIŞIGI; Ömer DÜZBAKAR; Mehmet ARSLAN), Sofia: ST. KLIMENT OHRIDSKI UNIVERSITY PRESS, 2015 pp. 228~244.

13) Filiz Gündüz, "Mahmud Paşa Külliyesi", İslam Ansiklopedisi cilt 27, Ankara: TDV, 2003, pp. 380~381.

14) M. Baha Tanman, "Murad Paşa Külliyesi", Düünden Bugüne İstanbul Ansiklopedisi, V, pp. 518~519.

15) Ekrem Hakkı Ayverdi, Osmanlı Mi'mârîsinde Fâtih Devri: 855-886 (1451-1481), İstanbul 1973-74, p. 502.

16) Semavi Eyice, "Atik Paşa Camiinin Türk Mimarî Tarihindeki Yeri", Türk Dergisi, sayı. 19 1964, pp. 99~114,

병원, 기도시간 계산소(Muvakkithâne), 무덤, 대상 숙소, 시장과 가게, 목욕탕 등으로 구성되어있다.¹⁷⁾

[표 1 참조]

퀵리에	모스크	마드라사	영묘	병원	무료급식소	가게, 시장	목욕탕	대상 숙소	기타
파티흐	o	o	o	o	o	o	o	o	기도시간계산소, 무덤,
마흐무드 파샤	o	o	o	x	o	x	o	o	초급교육기관
무라드 파샤	o	o	x	x	o	x	o	x	
웨이흐 베파	o	o	o	x	x	x	o	x	도서관, 식당
첼베르리타쉬 아틱 알리 파샤	o	o	x	x	o	x	x	o	x

[표 1-퀵리에의 구성, 파란색: 공공서비스적 성격, 노란색: 수익 창출적 성격]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파티흐 퀵리에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공공 서비스적 성격의 건물이 중점적으로 건설되었다. 무라드 파샤 퀵리에시, 웨이흐 파샤 퀵리에시는 목욕탕 정도만 수익 창출 창구로 사용하였고, 마흐무드 파샤 퀵리에시는 목욕탕에 대상 숙소를 더하게 된다. 사실 파티흐 퀵리에시의 경우 4250개의 상점과 3개의 사무실 건물, 목욕탕도 4개나 있었기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만일 퀵리에의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건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5세기 후반 퀵리에의 건설 목적은 주거 지역 개발에 치우쳐있다고 봐야 한다. 퀵리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로 퀵리에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만큼, 분명 장기적인 퀵리에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상업 용도 건물의 비중이 작다는 것은 퀵리에의 운영 주체인 워크프가 인근 상업지구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것은 주변 지역 상업지구 발달을 빼놓고는 계획 수 없는 부분이다. 앞서 이스탄불의 재건의 단계에서 언급했듯이 퀵리에 이전에 베데스텐을 중심으로 한 상업 용도 건물 개발이 선행된 것을 떠올려 보면, 충분한 수익이 돌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도시는 이 부유함을 주거 지역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이스탄불을 포함한 전국의 도시는 상업지구가 도시의 중심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기구가 도시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오스만 시대의 관리들이 모여서 업무를 보는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기본 구성요소인 '마을(mahalle)'은 일반적으로 모스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상업지구와 마을은 분리되었다.¹⁹⁾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상업 시설과 달리 오스만 시대의 마을은 일반적으로 인종과 종교에 따라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마을은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습관이 상이한(예를 들면 돼지고기 섭취)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한마을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²⁰⁾ 그렇다면, 모스크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한 퀵리에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무슬림 중심의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²¹⁾

17) A. Süheyl Ünver, Fatih Külliyesi Camii (1470-1765), İstanbul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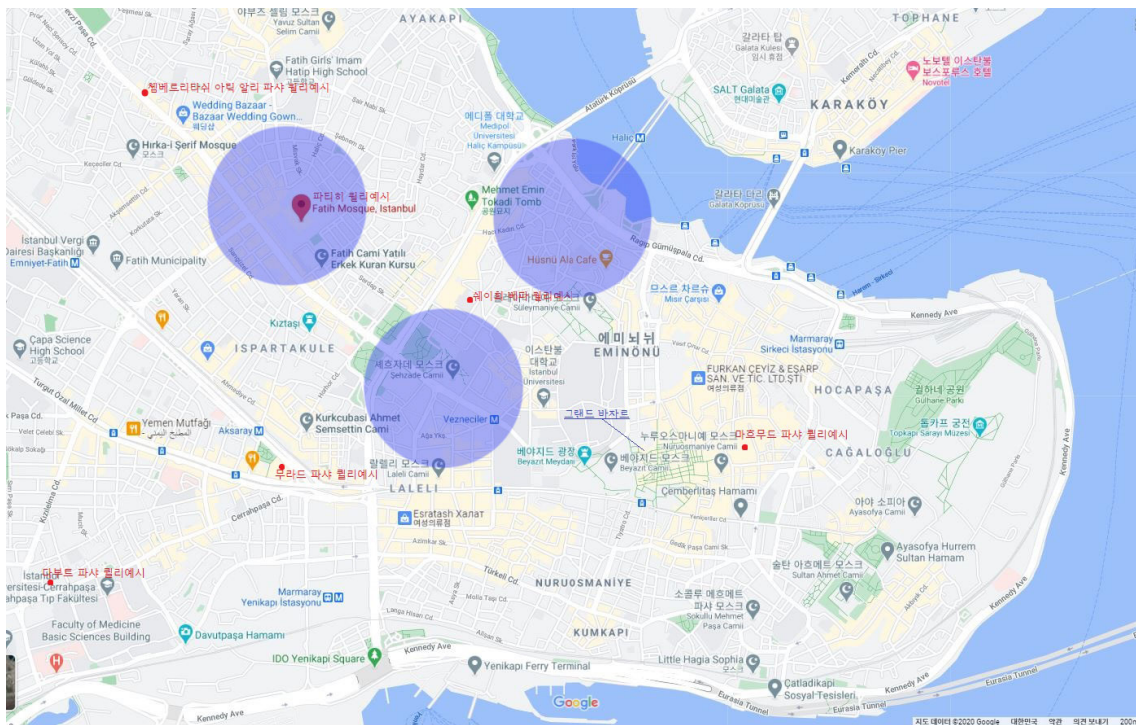
18) Serkan Sınmaz, ibid, p. 232.

19) Uğur Tanyeli, Türkiye'nin kentsel Tarihine Giriş, İstanbul, 1984, p. 80.

20) Halil İnalçık, "İstanbul: Bir İslam Şehri". İslam Tetkikleri Dergisi 9, 2010, pp. 258~260.

21)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마을은 교회(성당)과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또한, 종교의 종류에 따라 마을의 위치도 달라진다. 무슬림은 성내나 인근 지역에서 머물렀고 비무슬림은 도시 외곽이나 성 바깥에 마을을 형성 했다. Halil İnalçık. ibid 2010,

술탄 메흐메트 2세 치세 말기였던 15세기 말에는 이스탄불 성내에는 181개의 마을이 있었으며 성외의 에유페에는 2개, 카스파샤 지역에 2개 갈라타에 61개, 보아지치와 위스퀴다르에는 10개의 마을이 존재 것으로 보고 있다. 파티흐 지역과 사르츠하네 지역, 골든혼 근처에 마을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있었고, 마르마라 해변에는 드문드문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²²⁾ [지도 2] [지도 2]에서 파티흐 지역과 사르츠하네 지역, 골든혼 근처 지역을 표시한 것을 보면 대체로 쿨리에 근처에 마을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흐무드 파샤 쿨리에시의 경우 인근에 그랜드 바자르, 즉 상업지구가 위치하였기 때문에 마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5세기 말 마을 집중 지역]

4. 나가면서

이스탄불의 도시 재건은 우선으로 축소된 인구를 강제로 증가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도시 인구는 동로마 말기에 40,000~50,000명에 불과하였던 이스탄불 인구는 1478년 98,000명을 기록하게 된다. 인구를 강제로 증가시킨 후 궁전 건설과 성벽 보수와 같은 행정 및 군사적 목적의 건설을 명한 후 바로 상업지구 건설을 명한다. 이것은 증가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 활동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pp. 258~260: Uğur Tanyeli, ibid, p. 79.

22) Kemal Karpat, An inquiry into the Social Foundation of Nationalism in the ottoman State From Social Estates to Classes, From millets to nations, Preinceten University, 1973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야 퀴리예는 건설된다. 오스만 제국 도시 재건 초기에 퀴리예는 산재해 있던 인구를 집중시키고, 급증한 인구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스탄불을 포함한 오스만 제국의 대다수 도시의 사회적 인프라-물, 교육, 위생 등은 행정 기관보다는 워크프를 통해 해결했던 측면이 강하다.²³⁾ 워크프는 워크프의 자본으로 건설 및 운영되던 퀴리예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폐허가 되었던 이스탄불이 대도시로 발달할 수 있었던 재건 과정은 상업지구의 자본 창출과 퀴리예 건설을 통해 사회 안전망 마련이 바탕이 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3) Uğur Tanyeli, *ibid*, p. 78.

“지중해 종교문명의 ‘근대성’과 ‘세속화’”

- 지중해문명의 르네상스 재해석을 중심으로 -

김정하 (부산외국어대)

I. 서론

지중해의 역사는 이미 고대부터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의 글로벌 문명이었다. 종교적으로 고대가 다신교의 사회였다면 중세 지중해문명에서는 복수의 유일신종교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연구방법론과 역사해석이 아니라, 지중해 문명교류, 즉 ‘관계구도의 성립과 변천 그리고 그 흐름’으로 인식할 때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역사를 관계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역사가 홀로 성립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해석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관련된 모든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변화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 볼 때, 지중해문명은 우리시대 다문화 글로벌 문명의 역사적 거울이다.

본 발표에서는 **지중해 ‘유일신 종교문명’의 근대화를 세속화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한다. 지중해문명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일신 종교문명의 정체성이 이후의 관계구도 성립과 변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7세기 전반 이슬람교의 성립으로 중세 지중해 세계에서는 세 유일신 종교문명 간 교류의 관계구도가 성립했다. 이는 인류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유일신 종교문명 간 공존의 실험이었다. 세 유일신 종교문명의 공존구도와 그 변천은 근대 지중해문명이 시작된 배경이자 과정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근대화는 지중해 문명정체성의 변화에 있어 반(反)종교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발표자는 지중해 유일신 종교문명의 세속화를 탈(脫)종교중심의 문명정체성 변화로 이해하지 않는다. 즉 창조주가 아니라, **피창조자 신앙인의 관점에서 새로워진 문명세계로의 전환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피창조자의 문명세계는 각각 신과 인간을 상징하는 신앙과 이성(理性)이 교류의 차원에서 대대(待對, 또는 경쟁)와 유행(流行 또는 협력)의 상보성 구도로 작동된 결과였다. 역사적으로는 중세 지중해에서 유럽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 간 상호보완적 관계구도의 성립과 변천 그리고 그 흐름의 결과였다. 본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14~16세기의 르네상스를 ‘R’ 대문자의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아닌, ‘r’ 소문자로 표시되는 **‘지중해혼종문명권의 르네상스’**로 재해석할 것이다.

세속화의 키워드로 본 지중해문명교류의 역사는 16~17세기를 기점으로, 근대화의 두 상반된 흐름이었는데, 유럽기독교세계의 세속화와 이슬람세계의 종교문명이 그것이었다. 만약 이것을 한편의 탈(脫)종교의 세속화와 다른 한 편의 반(反)세속화 경향으로 볼 수 있다면, 전자의 경우, 문명권 내부에서

차이의 상반된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성립하면서 이들 간 경쟁과 협력의 관계 작용이 활발했다는 사실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한다. 반면, 세속화는 16세기 이후 지중해 문명의 근대화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역사적 흐름이었지만, 적어도 이슬람 세계의 근대화를 위한 여정의 본류는 아니었다.

공존하는 문명들은 함께한 역사에 있어 반드시 동일한 방향의 변화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없는 듯하다. 지중해 문명의 근대화를 위한 세속화의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이 두 문명권에 의해 공유되지 않은 것은 상반(相反), 상극(相剋))의 차이가 변화의 동인(動因)이라는 역사적 이치(理致)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II. 지중해 문명교류 패러다임 전환의 세속화

1. 지중해 종교문명의 세속화 해석과 기준

지중해문명의 세속화는 반(反)유일신 종교의 의미인가? 반(反)의 의미로 본다면 관련 역사는 갈등과 대립의 구도만을 해석될 뿐이다. 반(反)은 기존의 관계구도를 부정하는 견해와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서로의 입장을 견지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 가지 사례로 헤겔의 정반합(正反合)의 법칙을 살펴보자. 정(正), 즉 기존의 관계구도는 이에 대한 반(反)의 새로운 세력과 흐름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경쟁구도의 성립, 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는 우열의 논리로 발전(또는 진화)한다. 그리고 정-반의 귀결에 따른 새로운 구도는 합(合)이 된다. 반면 일음일양지위도 (一陰一陽之謂道)는 기존에서 새로운 관계구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정반합의 원리와 동일한 반면, 그 변천의 과정은 “갈등과 충돌의 원리(차별적 차이의 원리)”에서 탈피해, “경쟁과 협력의 상보성 관계구도 형성과 변화의 원리(차별적 차이와 다양성 차원의 차이가 함께 상보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와 중재요인 개입에 따른다.

상기 역사 흐름의 상보성 원리를 전제할 때 근대 지중해역사의 전환 패러다임은 종교문명에서 세속문명으로의 변화로 대변된다. 하지만 이것은 중세지중해문명의 종교성이 근대지중해문명의 세속성으로 완전 교체되었다는 흑백전환의 논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후자 문명의 종교적 정체성은 종교와 세속의 상보적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탈(脫)종교중심의 문명으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2. 탈(脫)종교중심의 문명정체성

역사에 있어 변화(전환)의 거시적 흐름은 기존의 관계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의 구도를 지향하는 불균형(혼란)의 과정을 의미한다. 탈(脫)의 의미는 기존의 관계구도 전반을 부정하는 반(反)의 의미와는 달리, 기존의 관계구도가 직면한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상반(相反) 관계의 주체로 작용하는 흐름의 성립을 의미한다. 또한 상반의 역할에 있어서도 상호보완의 기능을 가진다. 이 점에 있어 문명교류의 흐름은 헤겔의 정반합의 법칙과 구분된다.

유럽기독교문명의 세속화는 중세 종교사회에 대한 반(反)의 의미가 아니었다. 오늘날 이러한 변화를 반(反)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는 헤겔의 정반합의 법칙, 즉 서구의 역사연구전통을 관통하는 목적지향성의 직선적 인식과 사고(思考)구조에 과도하게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중세 이슬람 이베리아 800년을 재정복(Reconquista)의 역사로 해석한 것은 이에 대한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 기간을 공존(Convivencia)의 역사적 실험으로 정의한 것도 관점의 전환에 따른 또 다른 반(反)의 견해일 뿐이다. 문명교류의 역사인식은 역사해석에 있어 반(反)의 의미보다는 탈(脫)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이슬람의 이베리아 지배기간은 이베리아 기독교 세력에 의한 탈(脫)이슬람문명의 흐름이었으며 그 과정은 두 종교문명 간 상반(상극)의 상보성 관계구도로 작동하고 있었다.

3. 상반(상극)의 상보성 관계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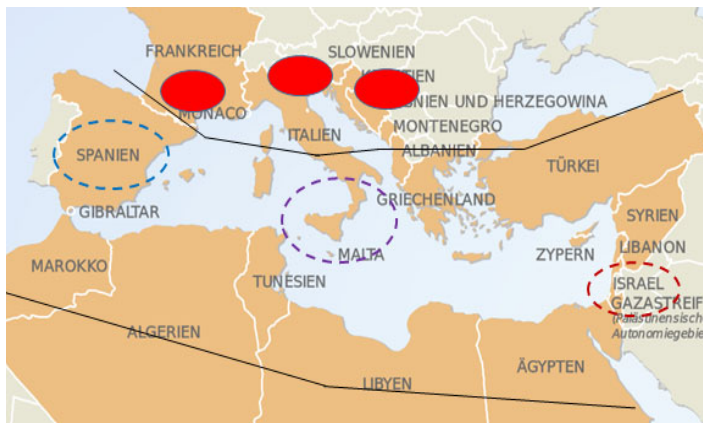
문명교류에 있어 상반 또는 상극의 관계구도는 그 변화의 과정에 있어 상보성의 원리를 전제한다. 이러한 발상은 역사를 충돌과 갈등의 관계구도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서구의 역사해석과 대치된다. 상반의 관계구도는 이를 통해 드러난 차이들의 여러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온도와 기압의 차이가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키듯이, 차이의 요인들은 상보적 흐름의 과정에서 변화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관계는 교류가 아니라 정체일 뿐이다. 유럽기독교문명과 무슬림문명은 7세기 이슬람의 성립을 계기로, 두 문명 간 차이가 존재하는 상반의 관계구도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 간 차이는 예를 들면, 이베리아,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그리고 레반트 지역에서 그 정도를 달리했으며,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교류의 다양한 유형들로 드러났다.

무슬림 이베리아에서는 다양성과 차별의 의미를 가지는 차이들이 상반의 차원에서 공존했는데, 이러한 교류의 특징은 Post 중세의 이베리아 역사에 지배한 영향을 주었다. 15세기 대항해시대가 이베리아 서부의 대서양 연안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베리아 반도는 중세 말 탈(脫)내륙문명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다. 당시 이베리아 지역에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문명 간 교류의 수많은 반복을 통해 성립된 혼종문명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고 있었다.

중세 이베리아의 역사에서 문명 간 차이는 로마-게르만문화와, 무슬림이 계승한 고대 동지중해-중동지역 문화 간 격차가 반영된 것이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세상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당시 이베리아의 토착문화는, 종교와 정치의 충돌을 넘어, 후자의 문화를 스폰지처럼 흡수하였다. 수준을 달리하는 두 문화가 접변할 경우, 문화적 변화의 정도와 충격은 하위의 문화권에서 더 크게 발생하며, 향후의 발전 전망에 있어서도 더 큰 가능성과 유동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상위의 문화는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위문화권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초기 아랍-베르베르인들이 지브롤터를 건넌 이후 오랜 기간 무슬림 이베리아는 남북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동서로는 고대그리스-비잔틴-중동 대문명권의 접변된 지적전통을 지중해 서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였다.

4. 중재요인의 개입

문명교류의 이론에 있어 지역문명 간 관계구도의 성립과 변천 그리고 그 흐름은 외부요인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두 문명 간 관계의 변화와 양태는 이를 통해 드러난 차이와 개별 지역의 역사-환경적 다양성의 정도에 비례한다. 게르만 대(對) 로마-이베리아주민 간 공존의 구도는 8세기 초반 무슬림의 유입을 통해, 변혁의 의미에 가까운 문명정체성의 전환을 경험했다. 또한 로마제국의 몰락, 게르만과 특히 무슬림의 유입으로, 지중해의 역사는 지리문화적 전망과 역사적 정체성을 달리하는 시대전환의 패러다임을 맞이했고, 그 결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유럽의 남부지역과 남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걸친 ‘지중해혼종문명권’이 성립했다.



[그림 1] 지중해의 혼종문명권

지중해혼종문명권의 발상은 문명교류의 관점에서 가능한 해석이다. 지중해의 남북에 걸친 혼종문명권 지역은 상하의 지역들에서 성립된 문명들을 지중해로 끌어들이고, 접변의 실험을 거친 혼종문명을 다시 주변으로 확산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14~16세기 지중해문명의 르네상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동시에, 혼종문명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종교-이념적 방어선의 형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림 1]에서 붉은 타원으로

표시된 프랑스, 이탈리아 동북부 그리고 동유럽의 보스니아 주변 지역에서는 기독교이전시대의 원시신앙과 종교재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시대를 배경으로, 혼종문명의 수용에 대한 배타적 수용의 사례가 매우 빈번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중세서유럽의 유일신 종교문명이 가진 배타적 성향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Ⅲ. ‘지중해혼종문명권’의 르네상스 (Mediterranean civilization's renaissance)

본 발표에서 르네상스에 대한 재해석은 이것이 지중해혼종문명권의 지리, 문화적 경계를 배경으로, 종교-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보다는, 다양성과 차별의 두 차원에서 전개된 문명 간 차이의 상호보완적 메카니즘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또한 14~16세기 지중해혼종문명권의 르네상스가 고대의 대-소문명 간 문명교류의 지적전통을

계승했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후시대의 유일신 종교문명 간 교류에서 종교의 신앙과 이념보다, 문화와 경제 분야의 세속화가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르네상스는 위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혼종문명의 실험이 가장 활발했던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성립했다.¹⁾ 르네상스를 단발적인 사건이나 현상의 가치로 평가한다면 문명교류를 위한 여지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고대 이후 오랜 기간 지중해의 혼종문명권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유기적인 변화들을 교류의 유형들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럼 지중해 문명의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성립된 이후 주로 혼종문명권의 북부 경계 너머로 재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르네상스가 보여준 세속화의 주된 흐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면 지중해혼종문명의 결실이 지중해 동남부지역의 이슬람문명권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경우에도 지중해 문명교류에 대한 사례분석, 특히 15~16세기 이후 이슬람 문명사회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논의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이슬람 종교문명사회의 세속화에 대한 배타적 성향 또는 반(反)세속화의 사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IV. 유럽기독교문명의 탈(脫)종교화와 이슬람문명의 반(反)세속화

중세 지중해문명교류에서 이슬람의 역할을 강조되는 이유는 유일신종교문명에도 불구하고, ‘타자에 대한 폭넓은 수용성’과 ‘공존의 통치’에서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의 무슬림화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피정복민에게는 지즈야를 조건으로 -비록 유대인, 기독교인, 조로아스타교 신자, 때로는 불교신자들의 경우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담마의 조건을 허용했다. 이는 로마제국이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의 포기와 세금을 대가로 자치적인 삶의 조건을 정복된 자들에게 제공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로마제국의 사례가 ‘고대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의 글로벌 공존’을 대표하는 사례였다면 이슬람의 경우는 ‘중세 다인종 다문화 유일신 종교의 글로벌 공존’을 대변했다. 달라진 것은 중세 지중해가 세 유일신 종교들로 구성된 다종교 글로벌 사회였다는 점이다.

타자에 대한 폭넓은 수용성은 이슬람이 타(他)문명들과의 문명교류에서 보여준 적극적 문화영향력과 문화유동성의 한 축을 담당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아바스 왕조의 번역지원과 번역 언어의 다양성은 지중해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방대한 지적전통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와 통치술의 차원에서도 이슬람의 폭넓은 타문화 수용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이슬람문명은 중세 지중해혼종문명권의 문명교류를 주도했으며 이로 인한 신문명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었다.

이슬람문명은 유럽기독교문명과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과 시기에 걸쳐 문화영향력의 주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더구나 중세의 전 기간을 통해 이슬람은 지중해 문명 흐름의 동남풍을

1)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멸망과 오스만제국의 지배, 1492년 그라나다의 함락과 로마가톨릭의 지배는 이전의 활발했던 문명교류의 급작스런 단절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탈리아남부와 시칠리아는 지중해혼종문명권의 문화적 중립지역으로 남았다.

유지하면서 유럽기독교문명의 탈(脫)봉건화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슬람문명은 정작 내부적으로는 -유럽기독교문명이 지중해상업경제의 발전과 종교개혁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탈종교의 세속화’라는 내적 변화의 여정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과학과 학문에서조차 이슬람의 문명적 경직성, 즉 이슬람이 무슬림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슬람문명은 대내외적인 측면 모두에서 과거의 전통과는 단절된 채, 사회적 유동성, 즉 사회발전에 필요한 상반(相反)의 상보적 관계구도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슬람문명사회는 반(反)세속화의 지배적인 흐름 속에서 근대지중해문명을 맞이했다.

V. 결론

지중해는 이미 고대부터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의 글로벌 문명이었다. 7세기 이후 유럽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은 각자 서로 다른 문명정체성의 다인종 다문화 글로벌 문명의 관계구도를 형성하였다. 이질적인 정체성의 두 문명권 간 관계는 대내외적으로는 각자의 유일신 종교정체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종교문명의 문명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종, 문화, 종교의 내적인 구성에서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했다. 당시 지중해문명의 흐름과 변천은 이러한 상이한 문명정체성 요인들의 공존구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구도의 성립과 상보적 관계들의 작용 그리고 그 이후의 변천에 있어 두 문명권은 상호간 영향을 배경으로, 대내외적으로 상이한 변화의 과정들을 경험했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기준들 중 하나는 ‘유일신 종교문명사회의 세속화’이다. 본 연구에서 세속화는 반(反)이 아닌 탈(脫)의 의미를 그리고 종교와 세속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관계구도의 성립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는 탈(脫)중세종교문명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종교문명사회의 세속화’에 있어 유럽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은 그 이후의 선택을 달리했다. 결과적으로 유럽기독교문명은 사회 내부의 세속화 움직임(프로테스탄트 및 일련의 이단운동들),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관계구도를 만들어냈다. 반면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세속에 대한 종교의 지배가 여전히 강력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종교의 영향은 반(反)의 의미에서, 무슬림문명사회의 세속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럽기독교문명의 세속화 여정은 십자군, 종교개혁, 비잔틴제국의 몰락과 그라나다의 함락, 과학의 발전과 탈지중해의 무역활동, 지리상의 발견과 대양항해의 여정에 따른 지중해혼종문명의 르네상스로 대변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변천이 두 종교문명권 간 관계구도의 형성과 변천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슬람문명의 세속화 여정이 어떤 관점과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지, 어떤 현상과 사건들로 제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발표는 지난 연구의 성과를 결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연구의 퍼즐을 제안하는데 그 의미를 가진다.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7세기 이후 다양한 교류의 유형으로 전개된 유럽기독교문명권과의 상보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문명은 지중해문명의 근대화 과정에서 탈종교문명의 성향을 대신해 반세속화의 방향성을

지향했다는 결론은 타당해 보인다.

